

발간 등록번호  
76-901000-000008-06

2008 9 제187호(통권 406호)

# 장학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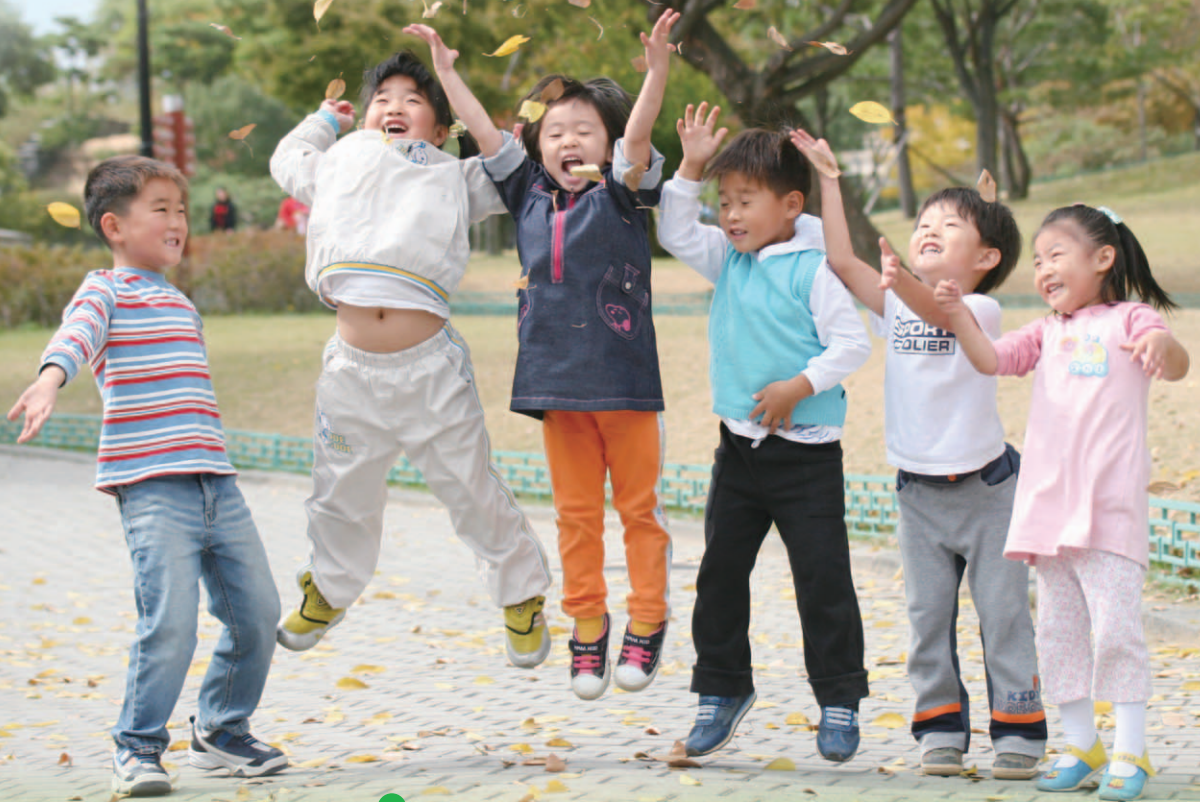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교육은 실천이다 / 교육감

경남초등특별활동연구회의 발자취

장학특집 - 평생교육

전문가 초대석 / 알아두면 편리한 금융정보(2)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 장/학/갯/러/리



# 소벌 간다

낮게 엮드린 마을 들머리  
증늬은이 하나 소를 몰고 지나간다  
물방개와 가시연꽃 그림자를 밟으며  
비닐 돛자리를 든 아이들이 통통거리는 오후다  
밭길마다 풀풀이는 황토흙먼지에 아지랑이가 어리고  
길섶 풀더미엔 이름 모를 꽃들이 얼굴을 열었다  
몇 굽이 들길을 돌아 흐르는 봄기운에  
만년빨의 깊이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듯  
부산을 떠는 벌과 나비가 시간을 섬기고 있다  
흙 좋고 넓은 들은 거들떠보지 않고  
철석같은 저 원시의 등짝은  
아직도 진화를 멈추지 않았는데  
물 좋고 산 좋으니 마음 급할게 없다  
먹이를 입에 문새 한마리가  
바람을 가르며 하늘로 솟구친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호들갑을 떠는 곳  
신(神)들은 모두 소풍을 가 버렸는지  
불과 열음을 꿈꾸고 있는 소벌에서  
지은 죄보다 덜어쓴 게 더 많은 나이  
내 마음이 촛스럽다

\*소벌: 우포의 우리말. 지금도 나이 든 청년 사람들은 우포를 소벌이라 부른다.

•글: 이월춘 (진해 중앙고등학교 교사)

•사진: 박재철 (마산 호계초등학교 교사)

권두언 >>



# 교육은 실천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열매 맺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긴 여름 방학동안 선생님들의 고단한 심신이 충분히 회복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뜨거웠던 선생님들의 연수 열기에도 감사드립니다.

영어 속담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냉철한 머리보다 따뜻한 가슴을 갖기가 더 어렵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먼 여행이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발은 삶의 현장이며 실천을 의미합니다.

교육은 실천입니다. 저는 우리 경남의 교육가족들이 머리보다는 가슴을, 가슴보다는 발을 소중히 하기를 기대합니다. 어린 학생들은 우리에게

삶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학생을 위해 뜨거운 가슴을 갖고, 실천하는 행동가가 되어야겠습니다.

교육에서 실천의 밑거름은 이론입니다. 교육만큼은 실패하지 않아야 하기에 검증된 이론들이 교육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틈틈이 교육이론서들을 읽고, 감각이 살아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열정과 의지를 말로 강조하기보다는 열정적으로 일하고, 진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찾아 경남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남의 교직원이란 자긍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활동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9. 1.

경상남도교육감

권경호



# 2008년도 경남교육 기본 방향

## 교육 지표

능력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



## 교육 시책

- 학생이 행복한 교육 -

-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인간 교육
-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인재 교육
- 지식강국 기반을 다지는 정보화 교육
- 도민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교육 행정



## 역점 과제

- 인격을 존중하는 생활지도
- 체험중심의 친환경교육
- 독서·논술교육 강화
- 창의성교육 강화
- 무상교육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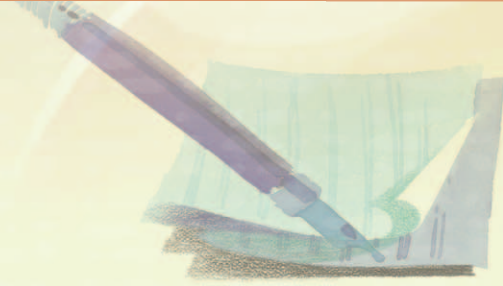
- 1 장학갤러리
  - 2 권두언
  - 6 장학칼럼
  - 8 기획시리즈
  - 11 **장학특집** 평생 교육
    - 소벌 간다 / 이월춘
    - 교육은 실천입니다 / 교육감
    - 울지 않는 매미 / 반해동
    - 경남초등특별활동연구회의 발자취 / 박기대
    - 평생교육의 방향 / 최경미
    -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학교 / 김상권
    - 교육공동체가 함께 빛어내는 행복파노라마 / 장상수
    -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 이용우
    - 알아두면 편리한 금융정보(2) / 신동원
    - 놀이와 말로 익히는 곱셈구구 / 황영란
    -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입체도형의 관찰 / 정재훈
    - 생각의 힘을 키워요 / 이혜영
    -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기술 지도(4) / 임경미
    -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 캠프를 통한 '친해지기' / 윤지선
    - 어느 시골 초등학교의 기적 - 카게야마 메소드 / 오세현
    - 부적응 청소년과 학교의 사명 / 노미애
    - 연금상식 / 박진영
    - '창조적 공존'으로 희망을 여는 통영교육! / 박영준
    - 교원 미당 - 발표력을 신장 시키려면 / 장창표
    - 학부모 미당 - 내가 만난 대한군자 / 려중동
      - 학생상담 자원봉사를 하기 까지 / 이성영
      - 한별유치원을 떠나며 / 조영순
    - 학생 미당 - 독서 토론 대회 / 양보원
      - 장수풍뎅이 / 김민찬
    - 위대한 반전 외 4편
    - 고향내음 / 진영순
  - ▶ 표지사진 - 박재철 (마산 호계초등학교)
- 22 전문가 초대석
- 24 수업기술 나누기
- 32 교육정보
- 43 현장포커스
- 47 참여마당
- 58 향기나는 서가
- 61 교원지상갤러리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한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중앙로 149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이메일:janghak@gnedu.net

2008년 9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권정호
- 총괄기획 : 장학담당장학관 임성택
- 편집주간 : 초등교육과 장학사 심광보
- 편집위원 : 김만호 박재철 박성년 전미하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반 해 동

경상남도교육청 감사담당관

# 울지 않는 매미

매미 소리가 제법 요란스럽고, 소리의 종류도 다양하다.

어릴적 시골 고향의 매미는 “뽀뽀”하고 한 가지 소리로만 울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소리를 듣기 어렵고 시골이나 산에 가면 더러 듣는 정도다.

요즘 주변에서 듣는 매미 소리는 “찌르르, 찌르르” 또는 “찌이이,찌이이”등 귀에 익은 소리가 아니다. 이 소리가 매미소리 맞냐고 물으니, 우리 직원하는 말 “중국 등 외국에서 온 다국적 매미” 소리란다. 이제 우리나라 매미도 다문화 되어 가는 것 같다.

매미 소리를 하다보니 기억도 가물가물한 오래 전에 읽은 글이 문득 떠오른다.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일화를 엮은 글로 생각되나 기억에 자신은 없다.

그러나 그 제목만은 확실하게 기억한다. ‘울지 않는 매미’

그 일화를 기억을 더듬어 각색해 보면 대충 줄거리가 이렇다.

암행어사가 종자 한명을 데리고 어느 고을을 지나가는데 고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마을사람 1 : 지금 읍내에 암행어사가 출두했다네

마을사람 2 : 그래, 그럼 우리 못된 사또는 어떻게 되나

마을사람 3 :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돼, 봉고과직이지

괴이하게 여긴 어사가 서둘러 고을 관아로 달려가 보니 가짜어사가 고을 원을 꿰어 앉혀 놓고 호통을 치고 있다.

더 자세히 불려고 구경꾼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아가려다 포졸한테



들켜 불기찍만 된통 맞고 쫓겨난다.

종자 : 왜 어사라고 밝히지 않고 바보같이 곤장만 맞습니까요?

어사 : 이놈아 그러면 저 어사가 가짜라는 게 탄로 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저 못된 사또만 살려주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비록 가짜지만 어사 행세는 똑바로 하지 않던가?

종자 : 그러면 어사출두는 언제 할려고 그래요.

---- 어디선가 매미 울음소리가 들려 온다 ----

어사 : 매미라고 어디 다 울어야 하느냐, 울지 않는 매미도 있는 법. 그나저나 어찌 엉덩이가 뜨듯하다.

공직 생활 했수도 어느새 40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거의 한해도 빠짐없이 감사를 받은 것 같다. 국회, 도의회, 교육위원회,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도교육청(지역교육청 근무의 경우) 등 감사기관도 많거니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보안감사 등 감사의 종류도 많아 면하려 해도 면할 수가 없다.

이런 감사에 대해 나는 불만이 많다.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많다.

그 이유는, 종합감사의 경우 감사를 받고나서 벌(주의, 경고 또는 징계 등)을 받는 사람은 거의가 평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다.

평소에 일도 잘 안하고, 귀찮다 싶은 일은 말 같잖은 논리를 펼치며 다른 사람에게 잘 떠넘기는 사람은 아예 확인서 한 장 안 쓴다.

이는 소위 말하는 적발위주의 감사를 하다보니 그렇다고 생각한다.

말로는 열심히 일하다 저지른 실수는 관대히 하고,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은 적발, 엄중 문책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와 감정이 좋지 않은 내가 감사담당관이 되었으니, 세상일이란 참 아이러니 하다.

이제 9월부터 하반기 감사가 시작된다.

나는 우리 감사요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려고 한다.

이제는 실적위주의 적발감사 보다는 비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하여 비리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예방감사 또는 지도감사를 한번 해 보자고.

이런 부탁을 하려고 하니 마음이 어찌 편하지가 않다.

감사원이나 교육과학기술부등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와서 실적이 없다고 날 문책하지나 않을까 해서, 참 세상일 만만하게 하나도 없다 싶다.

매미 우는 소리가 창문을 너머 들려오고 있다.

어딘가에서 울지 않고 있는, 아니 울지도 못하고 있는 매미는 없을까?

나처럼.....

# 경남초등특별활동연구회의 발자취



박 기 대

경남초등특별활동연구회장  
사천 남양초등학교 교장

## 1. 국가수준에서 특별히 강조된 특별활동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 수준의 기준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장학자료에 근거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학년, 학급, 교과, 특별활동, 재량 활동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수업을 이행한다.

오늘날의 교육은 전인적인 성장과 더불어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의 의미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로 간에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전인적인 인간 형성은 교과 활동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교과 활동을 통한 인간 형성은 객관적인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지식인, 교양인을 형성하는 것으로 그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과 활동과 더불어 교육과정에서의 특별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별활동은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 교육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개인의 적성이나 소질을 발견하고 신장하며, 자유로운 집단 활동을 통하여 협동심, 자주성, 책임감 등 민주 시민의 자질을 형성하게 한다.

특별활동이 학교별로 창의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융통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다양한 변인이 원만히 충족되어야 하나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교육과정이나 교육학자의 논의에는 특별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교사들은 특별히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초등특별활동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하여 연구하며 교원의 연수활동과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보급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친목을 목적으로 1997년 5월 15일 본 연구회가 조직되었다. 경남초등특별활동연구회의 연혁과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2. 특별활동 연구회의 발자취

### 가. 연혁

년월일	내 용	장 소	인원	비 고
1997. 05. 15	창립 총회	곤양초		초대 회장 김순영 교장
1997. 08. 25	제1회 자율연수	곤양초	40명	
1997. 12. 20	제1회 세미나 개최	명신에식장		경남대 김성열교수
1998. 08. 04	총회 및 제2회 세미나 개최	곤양초		진주교대 박영배교수
1998. 11. 16	제1회 개인연구발표		5명	교육감상
1998. 12. 03	교육부 지정과제연구 보고	곤양초		연구위원 9명 교육감상
2000. 08. 22	총회 및 제5회 자율연수	교대부설		제2대 회장 최정기 교장
2002. 06. 12	한국특별활동연구회 가입			사무국장 방문
2002. 08. 29	경남지회창립 총회 제6회 자율연수	봉곡초		경남지회장 최정기 봉곡초교장
2002. 10. 20	초등특별활동교육연구회보 발간	봉곡초		창간호
2003. 03. 01	홈페이지 오픈			<a href="http://gnes.org">http://gnes.org</a>
2003. 03. 01	한국교총 지원 교원동호회 선정			
2004. 03. 27	총회	노산초		제3대 회장 강혜영 교장
2004. 08. 02	제1회 직무연수( ~ 13)	노산초	38명	10일간 60시간
2006. 03. 10	총회	노산초		제4대 회장 신현권 교장
2008. 03. 21	총회	삼천포초		제5대 회장 박기대 교장
2008. 08. 28	제11회 자율연수(21세기 특별활동 교육의 방향)	문화예술회관	60명	윤영수 작가 초청

### 나. 주요 활동 내용

1) 2005년 교과교육 연구 활동 도지정과제 연구결과

가) 주제 : 행사활동 지도 자료의 개발과 활용

나) 발표일 : 2005년 12월 2일(금)

다) 장소 : 진주 신진초등(합동보고회)

라) 연구문제

- 행사 활동의 지도 자료를 어떻게 구안하고 제작할 것인가?
- 행사 활동 지도 자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2) 제9회 자율연수회 연수 내용

가) 주제 : 초등 통합논술의 지도 원리

나) 연수일 : 2006년 12월 27일 ~ 28일

다) 장소 : 삼천포초등학교

라) 연수 내용

- 초등 통합논술의 지도 원리(황진옥, 사천 독서논술 연구소장)
- 논술평가의 사례(이나리, 삼천포초등)

- 조화로운 좌·우뇌 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표현력 신장(개인연구입상자 : 백인정<진주 금산초>)
  - 논리적 표현력 신장을 위한 수준별 논술교육 자료 활용(연구학교보고 : 이동림<진주 촉석초>)
- 3) 2007년 경남초등특별활동연구회의 동계 세미나
- 가) 주제 : 아이들 마음공부와 뇌 교육 체험
  - 나) 연수일 : 2008년 1월 21일(월)
  - 다) 장소 : 삼천포초등학교 도서실
  - 라) 세미나 내용
    - 뇌 교육 체험 연수(조양명, 창원 상남중)
    - 마음공부를 통한 행복한 교실 만들기(조문주, 진주교대부설초등학교)
- 4) 제11회 자율연수회 연수 내용
- 가) 주제 : 21세기와 특별활동 교육의 방향
  - 나) 연수일 : 2008년 8월 28일(목)
  - 다) 장소 : 사천문화예술회관
  - 라) 연수 내용
    - 21세기 특별활동 교육의 방향 (박기대, 초등특별활동 연구회 회장)
    - 21세기와 이순신 리더십  
(윤영수, KBS '불멸의 이순신' 기획 및 대본 작업 방송작가 소설가)
    - 체험활동을 통한 특별활동 교육 운영의 방법 모색

### 3. 특별활동 연구회의 앞날을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정보화,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하는 격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 교육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은 비정상적이고 고정된 관념이나 사고에서 탈피하여 의도된 교육과 실현가능한 교육을 접근시킴으로써 교육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교육의 질'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새로워져야 하는 학교 모습을 전망하여 보면서 교육 여건과 환경이 조성된 인간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의 여건이나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교육과정이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학교교육이 교과서 중심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고 학교와 교원들에게 주어진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 탄력성,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짜여지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성 회복과 조화로운 전인교육의 실현을 위한 특별활동 각 영역의 조화롭고 융통성 있는 운영과 현장교사의 변화에 기여하는 특별활동 연구회, 연구하고 연수하는 특별활동연구회 활동을 통하여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보급에 기여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는 연구회가 될 것이다.

## 평생교육의 방향



최 경 이

경상남도교육청 장학관

### I. 들어가며

핵가족화 현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는 여가시간을 증대시켰으며, 이러한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 국가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자아실현 욕구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이 일생을 통하여 보람된 삶을 위해 학습해야 하는 평생학습사회를 초래하였으며, 민주화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세계화시대의 도래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학교시설과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 지역주민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키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평생교육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기서는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의 개념과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 II. 평생교육의 개념

#### 1. 평생교육의 뜻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 평생교육의 이념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고,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

로,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한다.

### 3. 평생교육에 관한 법령

- 가. 헌법 제31조 :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나.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 ②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다. 평생교육법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라. 평생교육법 제25조(학교 부설 평생교육 시설) : ①각급 학교의 장은 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 또는 직업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III.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시·도지사는 매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도평생교육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 1. 수립 배경

- 가. 개정 전 평생교육법에 의한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2 ~ 2006)이 종료, 평생교육법의 개정 및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출범과 연동되는 후속계획으로 추진
- 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
- 다.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현상에 대비한 ‘학습, 고용, 복지, 문화’의 연계와 소외계층에 대한 공적 지원 시스템 마련

### 2. 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

- 가. 추진 성과
  -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평생학습에 관한 체계적·종합적 계획마련과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설치 등 제도적 기반 확충
  - 평생학습도시 지정,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재정 지원 등 새로운 정책 수요의 부응과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율 증가와 사회통합에 기여
- 나. 한계점
  -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추진 체제 및 기구 부재로 관련 사업의 상호연계 및 추진 미흡과 전 생애

단계에 걸친 계속 순환학습 모형 제시 부족

- OECD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 제고 및 참여 확대의 한계다. 2차 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
- 국가는 방향타·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계획의 실제 집행 주체는 지역의 기초 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추진
- 인구동태학적 변화에 기초하여 생애주기와 직업주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학습콘텐츠 개발 등 종합 서비스 제공
-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성별, 학력별, 계층별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 방안 추진

### 3.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08 ~ 2012)의 수립

가. 정책 환경 진단

- ① 평생학습은 학령기에 놓친 교육기회를 보상하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산업 사회에서 지식사회로의 변환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래한 새로운 교육 문명  
⇒ 새로운 교육문명에 대응하는 총체적인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의 필요성 증대
- ② 사회·경제패러다임 : 창조성이 강조되는 미래사회의 대두 ⇒ 일터의 학습조직화와 유연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 필요
- ③ 인구패러다임 :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도시화 사회로의 전환 ⇒ 적극적 노령화 대책 수립과 총체적 교육체제 개혁 요구, 도시 내·외 네트워크와 협력체제 구축
- ④ 복지패러다임 : 사회통합형 국가 전략으로 평생학습 필요 ⇒ 평생학습은 포용사회, 사회투자국가를 건설하는 국가 안전망 전략 및 사회적 안전밸브의 역할
- ⑤ 글로벌패러다임 :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요구 증대 ⇒ 평생학습 자원간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세계적으로 인정·통용될 수 있는 교육·인증체제 구축 필요
- ⑥ 평생학습사회를 지탱하는 3대 축인 ‘자아실현, 고용가능성 증진, 사회통합 증진’의 모든 영역에서 참여 현황과 향후 참여 요구간 격차 발생  
⇒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평생학습정책 추진 요구

나. 중점 추진과제(3대 정책영역, 18개 주요 추진 과제)

- ① 생애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
  - 평생학습 중심대학을 통한 성인전기·중기 평생학습의 내실화 추진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성인후기 평생학습의 구체화
  - 전문대학을 활용한 일터-학습 연계 강화, 지역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 재직자 평생·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계 학원 활용 극대화
  - 지역사회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 추진
  - 군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활성화
- ②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 참여 및 연계 확대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 신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안전망 구축 운영
  - 문해교육 등 성인 기초능력 향상 교육의 체계화 및 실질화
  - 풀뿌리 민주시민교육 및 참여교육을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

- 중앙-지역 단위별 평생교육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
- ③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 평생학습 추진 체제 개편 및 정책 조정 역량 강화
  - 평생교육 전담 인력의 직업적 전문성 확보 및 배치 실질화
  - 평생학습도시 확산 및 내실화 추진
  - 평생교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정보망으로서 ‘국가평생학습지도’ 구축
  - 국가자격체제와 학습계좌제의 연계로 ‘교육훈련-자격-학력’이 동등하게 인정받는 능력사회 구현
  - 국제 파트너십 구축과 평생학습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확대
  - 즐거운 학습문화 확산을 통한 평생학습의 내재화 및 생활화

#### IV 맺는 말

세계의 흐름이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시작한 교육개혁의 일관된 방향은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이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 평생교육이기 때문이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교육감과 교육장이 담당해 왔던 시·도 평생교육의 계획 수립과 같은 평생교육에 관한 많은 부분이 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로 이관되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비중은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평생학습도시라든지 지자체나 사회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학습의 상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그런 학습의 장이 넓어진다는 것은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학교



김 상 권  
하동초등학교 교장

### 지역민과 함께 하는 학교

21세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움으로 이어져야 하는 시대다. 지식과 정보가 개인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전반에서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평생 배우지 않고서는 생존자체가 위협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

이에, 본교는 학교가 가진 풍부한 자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결합하여 우리 학교를 하동 지역의 평생학습장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개방하게 되었다. 지리적 여건상 지역민의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의 욕구를 지역 사회가 흡족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터라 <지역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과 참여는 기대 이상이었다.

### 평생학습장으로 평생A/S를 제공하는 학교

우선, SWOT 분석을 통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재원을 최대한 살리고, 약점과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설문지를 통한 기초 조사를 잘 분석하여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강좌 순으로 개설하였다. 강좌의 내용과 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 〈 강좌 내용 〉

프로그램	요일	장소	시간 운영	프로그램	요일	장소	시간 운영
관악연주	금	2-5	15:00~17:00	독서논술	목	도서실	19:00~21:00
홈패션	수	1-2	15:00~17:00	일본어	수	"	10:00~12:00
요리	토	과학실	10:00~12:00	영어	수	6-2	15:30~17:00
요가	월	다도실	15:00~17:00	서예	금	서예실	19:00~21:00
컴퓨터	화	멀티실	19:00~21:00	가요댄스	수	다도실	15:00~17:00



노래하는 어머니들



어머니회도 즐겁게



학부모선진지 견학

## 학창시절을 되돌려주는 학교

지난 7월에는 평생교육 강좌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121명)들이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고성 당항포, 자연사 박물관과 통영의 수산과학관, 해저터널 등을 관람하였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지역민을 위해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에 감사한다. 이순신 장군의 흔이 서린 고성과 통영의 남해안 견학까지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니 고맙다. 배우면 배울수록 왜 평생을 배워야 하는지를 알게 되며, 특히 자녀들에게 배움의 기쁨과 평생교육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 좋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어 강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어머니는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소리에 마치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었다.'고 말했다.

##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학교

시대와 사회의 변화는 전통적인 학교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지난해 개교 100주년을 맞은 본교는 이제 지역사회에 운동장은 물론 학교의 제반 시설과 인적자원까지 개방함으로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감동 주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획기적인 탈비움을 하기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 교육공동체가 함께 빛어내는 행복파노라마



장 상 수

고성 회화중학교 교장

‘열린 학습 사회’란, 학습 주체와 공간에 관한 개념으로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어 누구나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말하며, ‘평생 학습 사회’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애를 통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교육을 학령기에 받는 학교 교육으로만 생각해 왔다. 이러한 교육관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의 욕구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 열린 학습 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서 학교만큼 다양하고 우수한 인적자원과 시설을 갖춘 곳도 없기 때문에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시설 설비를 개방하여 지역사회 문화 센터의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학교가 이런 역할을 다할 때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을 받는 지역사회 주민이 학교에 대한 이해와 신뢰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내 자녀들처럼 아끼고 보살피며 사회의 학교화가 이루어질 때 학교와 지역사회는 바람직한 교육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이런 취지에 맞추어 본교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빛어내는 행복 파노라마’라는 주제로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07년 3월 2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평생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였다.

운영의 목적은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설정·운영함으로써 첫째, 평생교육 실천을 위한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둘째, 지역주민의 여가 선용과 능력 발휘의 기회를 제공하며 셋째, 학교와 지역 주민의 상호 이해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넷째, 지역 주민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신뢰증진을 도모하여 다섯째, 학교가 지역 문화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운영 과제로는 첫째, 지역 사회 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둘째, 교육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하였다. 운영 과제 실천을 위하여 평생 교육을 위한 홍보를 통해 수강자가 원하는 강좌로 우리 가락반, 스포츠 댄스반, 퀴트·십자수반을 개설하여 특별교실 활용과 감사 위촉 후 수강자를 관리 운영하였다. 또한 자녀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강식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양강좌를 실시하였다. 다음의 글은 평생 교육에 참여하였던 한 학부모의 소감문이다.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위한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받고는 퀴트반과 스포츠댄스반에 수강 신청을 하였다. 학부모가 아니라 학생이라는 설렘으로 평생교육 개강식에 참여하였다. 평생교육에 대한 설명에 이어 학부모를 위한 교양강좌가 이어졌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나누는 대화에서 ‘하지 말라’, ‘해선 안된다’는 말로 일관된 대화로 자녀를 교육하지는 않았는지, 칭찬보다는 질책을, 남하고 비교하는 말을 먼저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라는 강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 닿았다.

지금까지 특별한 취미활동을 하지 않은 나로서 1주일에 2회 퀴트반과 스포츠 댄스반 수강을 위하여 학교에 정기적으로 배우러가는 시간들이 참 기다려졌다. 댄스 시간은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친절하고 자세하게 한 동작 한 동작 가르쳐주시는 강사님의 그 열성과 흘리는 땀방울에 다소 동작이 생소하고 자주 바뀌는 동작을 익히느라 힘도 들었지만 사람들과 어울려 땀을 흘리며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여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는 듯 하였다. 퀴트반은 댄스반과 또 달라서 좋았다. 경험이 많으신 강사님께서 조금 단계를 시작으로 단계를 높여 그에 맞는 작품을 선정하여 재단에서부터 바늘 땀을 어떻게 놓는지 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붙이며 가르쳐 주셨다. 지도받은 대로 바늘 한 땀 한 땀 놓는데 왜 그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바늘땀을 놓을 때마다 작품이 바로 완성되어지는 것 같아 빨리 완성하여 선물하거나 필요한 곳에 쓰여 질 것이라 생각하니 참 재미있고 즐거웠다. 이렇게 두 강좌를 수강한 지 7개월이 지났다. 이 기간동안 학생이란 신분으로 학교에 편안하게 드나들다보니 평소에는 어렵게 느껴지던 학교가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담임선생님과 만나서 자녀의 교육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퀴트반에서 내 손으로 만든 작품들은 학교 행사에 전시하고 집으로 가져오니 남편과 아이들이 더 좋아했다.

그동안 이 지역민들을 위한 강좌를 개설해 준 학교에 깊이 감사드리며, 늘 강좌를 위해 준비하고 마칠 때까지 기다려 인사하는 걸 잊지 않았던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또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가까이에서 자그마한 일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 기회에 알게 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또한 이번 기회에 자녀와의 관계와 대화 기법을 바꾸려는 노력도 아울러 해 볼까 한다.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의 취미클럽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자기 계발의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생교육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빛어내는 행복과노라마」라는 주제로 경상남도 지정 평생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 조사를 수렴하여 지역 특성에 알맞은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홍보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개방된 학교를 드나들으로써 평생교육이 학교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수강생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과 프로그램의 성실한 관리, 외부인에 대한 친절한 자세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 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셋째, 평생교육 활동에 참가하면서 건전한 여가 생활은 물론 자녀에게도 교육의 모범을 보이게 되어, 평생교육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넷째, 지역 주민의 자기계발 및 활동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문화센터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시범 운영을 통한 제언으로는 첫째, 평생교육 운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의 배치, 재정 지원 등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운영 및 감사 경험이 많은 교사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고, 운영 축적 자료의 보관과 인계 및 지역사회교육 단체와 연계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평생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속적인 학습 활동과 각종 모임을 만들 수 있는 학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평생교육 개강식〉



〈우리 가락반〉

##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이 용 우  
사천 곤양고등학교 교사

우리들은 변두리에서 항상 중심을 꿈꾸지만 세상은 지식 정보 등의 이름으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태풍의 눈처럼 근접하기 힘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익히는 사람만이 오늘의 사회에 적응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혼돈의 사회 속에서 교육적 욕구 충족, 자기개발, 삶의 질 향상이라는 평생 교육은 우리들이 세상의 중심을 향하여 달릴 때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 사회간의 유대가 강화되어야 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학교의 역할도 증폭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학교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의 장에서 벗어나 사회교육의 중심 및 문화센터로 누구에게나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는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에 전체 학생 139명의 6학급으로 구성된 본교는 지리적 여건으로 문화 활동이 부족한 농촌 지역민에게 적합한 풍수지리, 요가, 도예,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주교자 시범학교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하는 시범학교 운영의 목적은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능을 높이고, 자아실현을 위한 보람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 본교에서는 그 구체적인 목표로 첫째, 학교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둘째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셋째 지속적인 교육 공동체의 참여를 통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평생교육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관련 깊은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운영 방법을 마련하였다. 이것을 위하여 수강생 모집은 현수막 설치, 농협 게시판에 홍보물 부착, 가정 통신문 발송 및 지역민 방문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였으며, 강사는 교내 교사를 우선으로 계획하였지만 프로그램에 합당한 무용가, 도예가, 풍수학자 등의 전문 외부 강사를 섭외하여 지도하였다. 특히 곤양면 소재

향교 및 도청요 도자기와 곤양 농협 등의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시설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은 학생 대상 프로그램 영어회화와 지역민 대상 프로그램으로 풍수지리 교실, 요가 교실, 도예 교실 등으로 구분하고 각 강좌 30시간으로 하였다. 물론 수강료는 무료이며, 수강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2/3이상 출석했을 경우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변화하고 묵은 지식은 죽고 새로운 지식은 탄생하는 시대에서 짐작컨대 이같은 본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었고, 또한 학교가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의 보급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농촌 지역 실정에 맞는 주역, 풍수지리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하였다. 특히 도예교실에서 수강생이 만든 도자기를 가정에 가져가도록 함으로 수강에 대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자아실현의 기쁨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교에 근접하여 있는 인근 부대장병을 활용한 영어프로그램 강좌에서 외국에 오래도록 거주한 장병이 지도하는 살아있는 영어는 학생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어내는데 충분하였다. 또한 체육관이 없는 본교 실정에서 곤양 농협의 다목적 공간을 연계한 요가 교실을 운영하여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와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 지역민들에게 놀라운 칭송을 받아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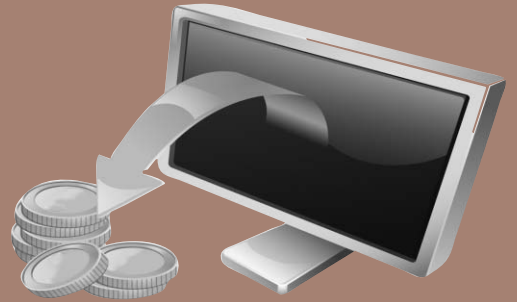
<b>100년신촌 경남일보</b> SINCE 1909.10.15 www.gnews.co.kr		5월11 (금) 8월 진주	기온 26°C 강수 10/30% 1.167도 황산 밀물 18:00	[신문] [신문] [신문] [신문]
전세기사 정치/중합 경 제 사 회 스포츠	지역/교육	엔터테인먼트 경일마당		
<b>News</b> 전 계 기사 - 정치/종합 - 경제 - 사회 - 스포츠 - 지역/교육 - 엔터테인먼트 - 경일마당 - 레저/여행 - 사설/칼럼 - 증권 - 뉴스인물 - 지리산 - 기획특집	<b>곤양교 무료강좌 지역주민에 인기</b> 김승호 기자 shoo@gnews.co.kr 2007-05-11 09:30:00 농촌지역 한 고등학교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무료 교육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눈길을 끌고 있다. 사천 곤양고등학교(교장 윤형기)는 농촌의 열악한 문화 및 교육 환경을 감안, '학교는 지역 문화의 구성체가 되어야한다'는 신념 아래 학교 시설과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해 지역 주민과 재학생들에게 문화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곤양고는 지난 4월30일 지역 주민 및 재학생들을 위한 요가교실과 영어교실을 개설해 지역 주민과 함께 평생교육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다. 곤양농협과 연계해 운영되는 요가교실에는 주민 및 재학생 30여명이 참여, 건강을 다지고 있으며, 인근 군부대의 협조로 영어관에서 장기간 생활한 장병을 강사로 초빙해 밤과 후 실시되는 영어교실에도 재학생 30여명이 학구열을 불태우는 등 학교 운영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윤 교장은 "지역사회의 학교는 평생교육으로서 주민들의 여가 시간의 효율적인 교육의 장이 되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강좌가 인기를 끌자 곤양교에서는 풍수지리교실과 공예교실 등 2개 강좌를 더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강좌까지 개강되면 지역민과 학생들에게 건전한 여가 선행과 배움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여 사천시 곤양면 지역이 문화의 소외 지역이라는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지역/교육</b> - 지역 - 지역대신				

전/문/가/초/대/석



신 동 원  
금융결제원 창원지부장

## 알아두면 편리한 금·용·정·보(2)



### 휴대폰 등 전화를 이용한 지로·공과금 수납

은행 고객이 휴대폰이나 일반 전화를 이용하여 각종 공과금과 지로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은행 공동으로 개발하여 2005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실시로 은행의 모바일 뱅킹 또는 텔레뱅킹 이용고객은 서비스메뉴 중 지로·공과금 납부서비스를 선택하여 금융결제원에 구축된 지로고지내역 DB에서 자신이 납부해야할 대금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대상은 전화료, 전기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공과금과 장표에 전자납부번호가 있는 각종 지로대금 및 국세·지방세 등입니다.

현재 일부 은행의 모바일뱅킹에 지로납부서비스가 있지만 지로번호와 고객조회번호, 납부금액 등을 고객이 일일이 입력하는 방식이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새로운 서비스는 고객이 10자리 안팎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자신에게 고지된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여부를 선택하면 되므로 납부 절차가 간편하며 오류발생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 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은행 이용고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2007년 9월 4일부터 모바일뱅킹 가입은행이 아닌 타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예금조회, 현금 입·출금,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객들은 거래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타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까지 확대하여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이용고객의 편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상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모바일뱅킹 이용고객은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신규 이용고객은 거래은행에서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신청한 후 칩(Chip)을 발급받아 휴대폰에 장착하면 동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가능한 은행은 농협,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및 우체국이며 동 서비스가 가능한 현금자동입출금기는 전국적으로 약 14,000여대(약 30~40%)이고, 각 은행들은 이러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행별 이용 가능한 금융거래〉

은행명	타행거래			
	조회	출금	입금	이체
농협	○	○	×	○
우리	○	○	○	○
SC제일	×	○	×	×
하나	○	○	×	○
기업	○	○	×	○
국민	○	○	×	○
외환	○	○	○	○
한국씨티	○	○	×	○

은행명	타행거래			
	조회	출금	입금	이체
수협	○	○	○	○
대구	○	○	○	○
부산	○	○	○	○
광주	○	○	○	○
전북	×	○	○	×
경남	○	○	○	○
우체국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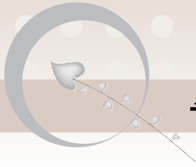
## 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한 현금입금

은행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2006년 12월 15일부터 현금카드(Cash Card)를 소지한 은행 고객들이 타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하여 고객 거래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00:30-23:30이며 대상권종은 1만원권(1천원권 및 5천원권은 CD/ATM 보유은행이 자율로 결정)이고, 1회 최대 입금한도는 100만원(1일 입금한도 및 거래 횟수는 CD/ATM 보유은행이 자율로 결정)입니다.

이용방법은 현금입금서비스가 가능한 현금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CD/ATM에 현금카드를 넣은 후 현금을 입금하면 현금카드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이 처리됩니다.

〈현금입금서비스 실시은행〉

구 분	은행명
현금입금서비스 가능한 은행	산업,기업,국민,수협,외환,우리,SC제일,씨티,하나,신한,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경남,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한, 지축은행 (20개은행)
현금입금서비스 일부 가능한 은행	농협(단위농협 포함) ※ 타 은행 현금카드 소지고객은 농협 CD/ATM에서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농협 현금카드 소지고객은 타 은행의CD/ATM에서 동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입금서비스 이용불가 은행	HSBC은행



황영란

사천 문선초등학교 수석교사

## 놀이와 말로 익히는 곱셈구구

Dewey, J.의 ‘나는 과목(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가르친다.’는 말을 좋아한다. 그래서 항상 가르치기 이전에 가르쳐야 할 목표와 내용을 파악한 후 학습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준비도를 먼저 살폈다. 사전능력과 관심, 흥미, 학습 자세 등을 살피고 필요하다면 시간을 더 들여 분석한 후 학습자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방법을 찾으려고 고심했다.

지난 7월 22일 방학 하루 전날 학부모를 대상으로 1학기 학급경영보고회를 가졌다. 22명의 학부모를 모시고 2교시 수업공개와 3교시 학급경영보고회로 이루어졌다. 2교시 공개된 수업은 수학 2-(가) 8단원 곱하기였고 단위시간 수업목표는 ‘정렬된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곱셈식으로 나타내게 한다.’ 이 목표를 재미있는 놀이를 통하여 여러 가지 곱셈식으로 나타내었던 수업을 여기에서 나누고자 한다.

### ◆ 수업자 의도

수학 2-(나) 1단원에서 구구셈이 나오지만 1학기에 이미 많은 아이들이 구구셈을 외우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수업에서는 묶어 세기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묶어 세는 것이 더 필요한지, 생활 속에서 묶어 세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놀이와 구체물을 통해 경험하고 그것을 실제 문장제 문제로 만들어 해결하는 과정을 말로 풀어보면서 생활 속에서 곱셈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하려고 하였다. 수업은 놀이와 문제해결학습모형이며 학습 집단은 전체학습, 모둠학습, 개별학습 그리고 전체학습으로 정리하였다.

### ◆ 수업 시작

수업은 책상을 교실 양옆 가장자리로 옮기고 교실 한 가운데를 비워 러그미팅으로 시작하였고 교사가 불러 주는 수만큼 손가락을 펼친 다음 모듬원 끼리 동글게 모여 앉아 펼친 손가락 수를 여러 가지로 헤아려보고 그 방법을 말하게 하는 것이 동기유발을 이었다. 이 활동으로 묶어 세기의 편리함을 스스로 깨닫고 오늘 공부할 문제를 예견하고 말할 수 있게 하였다.

## ◆ 문제해결

[활동1] 놀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짝짓기 놀이는 여학생이 먼저 원을 그리며 신나게 노래하다 교사의 호루라기에 맞춰 불러주는 수만큼 짝을 지어 앉고, 짝을 짓지 못한 친구는 선생님 곁에 와서 서게 한다. 이때 원 밖에 앉아 있는 남학생들이 짝을 지어 앉은 여학생을 보고 묶어 세기



로 덧셈식과 곱셈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렇게 교대로 짝짓기 놀이를 할 때 학부모님이나 원 밖에 있는 친구들이 호루라기에 맞춰 짝을 불러주기도 하여 교실 안에 있는 모두가 동참하는 수업이 되게 하였다. 그다음 활동은 모둠끼리 둘러 앉아 교사가 지시하는 수대로 다리 또는 팔, 손가락 등을 이용하여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여 그 과정을 말로 표현하였다. 이 활동은 곱셈의 개념을 생활 속에서 익힐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이었으며, 묶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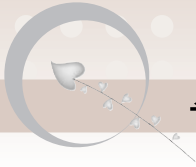
헤이리고 말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문제해결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활동2]는 책걸상을 모둠별로 정리한 다음 다시 모둠별 책상다리, 교실 전체 책상 수를 모듬토의를 통해 곱셈식으로 해결한 후 개인별로 준비된 연필 한 다스를 자유롭게 묶어 세는 활동을 하였다. 전체를 헤이리는 방법으로 곱셈식의 편리함을 알고 또 가장 빠르게 헤이릴 수 있는 묶음이 있음을 구체물 조작을 통해 체험하게 하는 활동이다. 수업의 2/3를 넘어선 후 학습지의 정렬된 상황을 보고 묶어 세기를 하기 전까지는 학습자는 연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때 교사는 모든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고 feed back으로 재확인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 ◆ 정리

정리활동에서는 놀이와 문제 풀이를 통해 느낀 점을 발표해 보고 생활 주변에서 곱셈식이 필요한 상황을 찾아보게 하였다.

수업을 보신 학부모님께서 방학 중 아이에게 구구셈을 어떻게 외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수업 전에 미리 제공된 자녀 수업 관찰지로 자녀의 학습을 영역별로 관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해 하였다.



## 수·업·기·술·나·누·기

수학과 수업 아이디어

###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입체도형의 관찰



정재훈

김해 심문고등학교 수석교사

I hear, I forget  
I see, I remember  
I do, I understand.

이 글이 가슴에 와 닿아 그 출처를 찾아보니 중국속담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니 荀子(순자) 儒效篇(유효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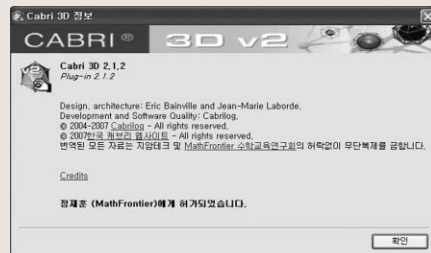
「不聞不若聞之, 聞之不若見之, 見之不若知之, 知之不若行之; 學至于行之而止矣」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배움은 직접 행함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반영하듯 요즘 수학 교육도 Do Math를 많이 강조한다. 그런데 수업시간에 직접 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할까? 손으로 직접 만지지 못하면 컴퓨터를 통해서 만지고 느낄 수 있다. 특히 입체도형 수업에서 많은 입체도형을 다양한 각도로 관찰하고 직접 잘라보고, 그 단면을 관찰하는 것은 실물 자료를 구해서 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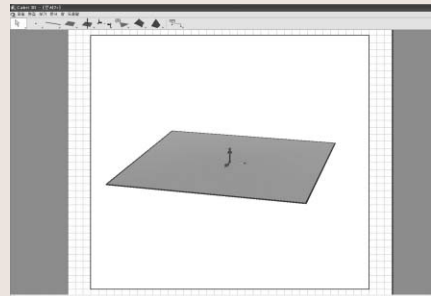
입체도형을 관찰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프랑스 Cabrilog사의 Cabri 3D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정육면체를 절단해서 그 단면을 관찰해보자. 프로그램은 인터넷상에서 그 데모버전을 구할 수 있다.

Cabri 3D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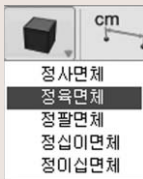


Cabri 3D를 실행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기준 평면과 3차원 기본 벡터가 나타난다. 그런데 중학교 수준의 기하에서 공간좌표를 사용하는 작도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세 기준 공간 벡터의 원점을 지우면 세 벡터가 모두 사라지므로 기준 평면만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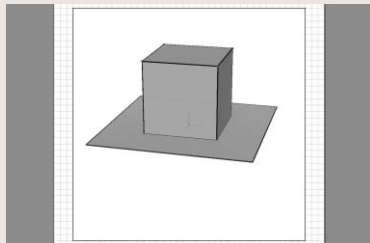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채로 움직이면 여러 각도에서 입체도형을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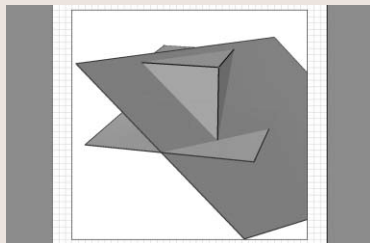
Cabri 3D를 실행한 다음 그림과 같이 정다면체 도구에서 정육면체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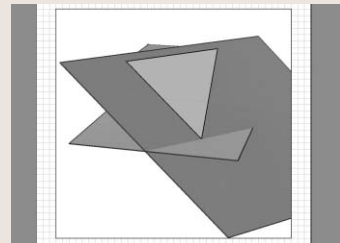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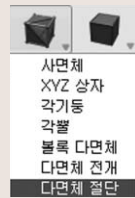
원점을 선택하여 평면을 밑면으로 하는 정육면체를 작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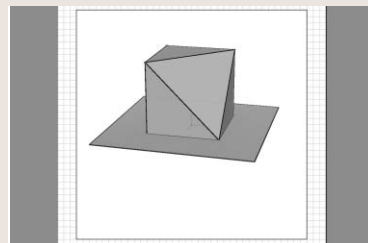
평면( )도구를 선택한 다음 교과서에 나타난 그림과 같이 세 꼭짓점을 지나는 평면을 작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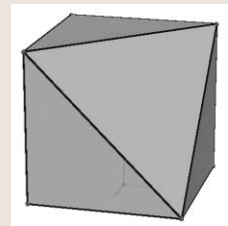
다면체 절단 메뉴를 선택하여 정육면체를 세 꼭짓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절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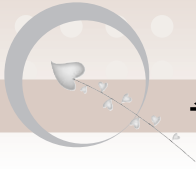
절단한 평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숨기기/보이기 메뉴를 이용하여 평면을 숨긴다.



기준 평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숨기기/보이기 메뉴를 이용하여 평면을 숨긴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며 도형을 관찰할 수 있다.



## 생각의 힘을 키워요

- 사고력 신장 구조 -



이혜영

통영 죽림초등학교 교사

오늘날 교육의 성패가 정보를 저장하는 양이 아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문제 만들기, 종합, 분류, 재분류, 평가,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고 볼 때, 정보의 분류 능력은 정보화 시대의 필수이며 정보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실에서의 사고력 신장은 절실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학습구조의 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 1. 모둠 문장 : 통합사고와 깊이 있는 생각을 이끌어요.

• 빈 문장을 채워 개념을 새롭게 재정의 해 보는 구조로 고차원적인 통합사고와 깊이 있는 생각을 이끌어낸다.

① 주제를 알려주고 적어도 20초 동안 생각할 시간을 준다. ② 짝을 지어 생각을 토론한다. ③ 혼자서 주제를 한 문장으로 나타낸다. ④ 개인적으로 쓴 문장을 비평 없이 순서대로 돌아가며 읽는다. ⑤ 모둠은 개인적인 문장들에 대해 토론하고 각자의 참신한 생각에서 주제에 대한 중요한 요소를 찾은 후 모둠이 합의해서 1개의 문장을 만든다. ⑥ 합의된 모둠 문장을 칠판나누기를 통하여 전체 학급에서 나눈다. ⑦ 모둠원들은 자기 모둠과 다른 모둠의 문장을 비교 토론한다. ⑧ 시너지의 개념에 대해 서로 토론한다(종합을 통해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인가, 한 집단이 우리 중 한사람보다 우수한가 등).

### 2. 이야기 엮기 :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요

• 여러 장의 그림 카드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만든 구조로 전후관계의 순서가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① 여러 컷의 그림카드를 한 컷씩 오린다. 한 모둠에 한 셋트씩 준비한다. ② 섞어서 각자 1~2 컷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③ 자기 그림을 모둠원에게 말로 설명한다. 이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컷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음을 강조한다. ④ 들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각자가 가진 것들 중 첫 번째가 어느 것인지 모두 동의를 하면 그림을 뒤집은 채로 놓는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것들도 순서대로 놓는다. ⑤ 실제의 순서와 비교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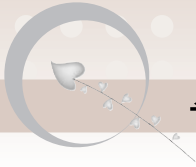
### 3. 두 박스 놀이 : 스스로 규칙을 찾아요.

• 규칙을 가르쳐 주지 않고 예를 유추해 귀납적으로 규칙을 찾아내는 구조이다.

① 관계가 있는 두 가지 항목을 정한 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두 개의 박스에 한 번에 하나씩 항목을 쓰거나 발표한다.〈표 1〉 ② 생각-쓰기-나누기로 박스1과 박스2를 구분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규칙을 찾아낸다. ③ 다시 박스2에 항목을 하나 더 추가 한다.〈표 2〉 ④ 두 박스의 공통점을 혼자서 생각하고 나서 모둠토론을 한다. ⑤ 다시 박스1에 항목을 하나 더 추가시킨다.〈표 3〉 ⑥ 생각-쓰기-나누기에 의해 가설을 세운 후 질판나누기를 한다. ⑦ 스스로 규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항목을 계속 추가한다.〈표 4〉 ⑧ 추가된 항목으로 박스 1과 2에 들어갈 수 있는 규칙을 찾아본다. ⑨ 학급전체가 합의하여 규칙에 맞는 적절한 문장으로 표현한다.〈표 5〉 ⑩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규칙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봄으로써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표1〉	박스1	박스2
	나뭇가지	포크
〈표2〉	박스1	박스2
	나뭇가지	포크 ナイフ
〈표3〉	박스1	박스2
	나뭇가지 유리	포크 ナイ프
〈표4〉	박스1	박스2
	나뭇가지 유리 ⋮	포크 ナイ프 ⋮
〈표5〉	박스(철이아닌것)	박스(철로 된것)
	나뭇가지 유리 ⋮	포크 ナイ프 ⋮

위와 같은 사고력 신장구조의 적용은 답이 정해지지 않은 효율적인 발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기발하고 독특하며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위에 제시한 구조를 참고로 다양하게 변형하여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사고력을 높여가는 질 높은 수업이 되리라 본다.



임 경 미

양산 중부초등학교 교사

##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기술 지도(4)

- 학습기술지도 프로그램(지난호에 이어) -

### 3. 과제해결 학습기술

과제를 정리하고 해결하는데 관계되는 학습기술은 크게 읽기 과제에 관한 학습기술과 쓰기 과제에 대한 학습기술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읽기 과제에 대한 학습기술은 주로 밑줄긋기, 자신의 말로 의역해 보기, 읽은 내용을 간단한 그림이나 도표로 나타내 보기, 핵심내용을 여백이나 공책에 표시해 두기, 중간 중간에 이해의 정도를 확인해 보기, 예상 질문 만들어 보기 등으로 이루어지고, 쓰기 과제에 대한 학습기술은 과제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하기, 독창적 아이디어 생각하기,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및 정리하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가. 읽기 학습 기술 : 단계별 읽기 학습 기술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읽기 단계와 세부 활동〉

단 계	학 습 기 술
읽기 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괄하기(제목, 서문, 저자 파악하기로 저자의 의도, 학습목표 파악, 배경지식 형성)</li> <li>*개념과 단어 배우기(교사 설명, 사전, 참고도서 활용)</li> <li>*목적과 계획 세우기(목적에 따라 정독, 선택적 읽기 선택)</li> <li>*교재의 구조 분석(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의 이해)</li> <li>*평가준거 확인하기</li> </ul>
읽기 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트하기(장기기억필요정보, 재조직필요정보)</li> <li>*개요작성이나 시각화하기</li> <li>*요약하기(중요정보 판단, 일반적 개념 찾기, 요약하기)</li> <li>*이해 점검하기(학습목표에 비추어 질문하기와 질문에 답하기)</li> <li>*적절한 속도로 읽기</li> </ul>
읽기 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읽은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기</li> <li>*요점 결정하기</li> <li>*자신의 말로 옮겨 쓰기</li> <li>*다른 사람에게 말하기</li> </ul>



## 나. 쓰기 학습기술

쓰기 기술은 맞춤법을 아는 초보적인 수준에서부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기술이다. 학교공부에서는 시험답안작성, 학습지완성, 논술시험, 보고서작성, 독후감 쓰기 등의 다양한 형태의 쓰기를 요구한다. 여기서는 글쓰기의 일반적 절차와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본다.

먼저 글쓰기의 일반 절차는 계획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의 절차를 거친다. 이 절차를 간략하게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주제정하기 : 주어진 제재나 주제를 더 자세하게 나누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과, 후보가 되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때 흔한 것, 결론이 뻗은 것 등을 지워나가 최종적인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
- 2) 제목붙이기 : 글의 내용을 암시해주거나 글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참신하고 인상적인 제목을 써야 한다
- 3) 개요 작성 : 마인드맵 방법, 브레인스토밍 방법 등으로 전체적인 진행방향을 설계해 본다.
- 4) 쓰기 : 서론, 본론, 결론의 기본형식에 맞게 쓰되 정확한 단어 선택에 주의한다.
- 5) 고쳐 쓰기 : 삭제의 원칙, 부가의 원칙, 재구성의 원칙에 따라 고쳐나간다.

다음으로 보고서 쓰기의 기본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과제 명확히 하기 : 쓰기의 목적, 읽는 사람, 길이, 참고자료, 제출시한 점검
- 2) 토픽 구체화하기 : 교사가 부여한 일반적인 과제를 구체화하기 기술
- 3) 계획 작성 : 과제제출 기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계획
- 4) 아이디어 생성하기 : 브레인스토밍, 자유 작문, 개념도 만들기 기술
- 5) 정보수집 : 도서관 자료이용, 서적의 색인과 내용목차 이용, 개괄하여 읽기, 관찰과 인터뷰 기술
- 6) 아이디어 계획적으로 정리하기 : 개요작성 기술
- 7) 초고 쓰기 : 신속하게 쓰기, 노트 없이 쓰기, 브레인스토밍 활용
- 8) 초고에 대한 피드백 받기 : 소집단 협동학습으로 상호점검하기
- 9) 보고서 수정하기 : 삭제, 부가, 재구성, 맞춤법 살피기
- 10) 최종본 만들기

## 가

# 족과 함께하는 독서 캠프를 통한 ‘친해지기’

- 진주 망경초등학교 사례(교장 최정기) -



진주 망경초등학교 교사 윤지선

## 1. 시작하며

책에 대한 찬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위인들의 일화 속에서 그들이 한 명언 속에서 빛난다. 사진하나 남기지 않은 수많은 위인들이 말하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그들과 비슷하게 훌륭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곤 한다.

학창시절 ‘문학소녀’로 불리며 책 속에 폭 빠져 있던 나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절 밤마다 하버드의 천재들과 대화했고, 수천년 전에 살았던 인류와 함께 생활했으며 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멘토’들과 교류했다.

경기도에서 파견교사로 망경초등학교에 처음 왔을 때 교문 앞에 위용을 뽐내고 있는 독립 도서관에 놀랐다. 경기도에서 ‘늘품샘-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선생님, 늘 푸른 샘-’이라는 작은 동아리를 조직해 독서 교육 책을 출판하기 위해 노력했던 터라 독립 도서관의 존재는 큰 설렘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책을 사랑하고, 책과 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교직 7년 동안 고민했던 숙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 2. 책과 친구 맺어주는 선생님

### 1)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2008년 7월 19일 망경초등학교 도서관에서는 전자 자료실 개관식을 가졌다. 전자 자료실은 21세기의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전자 자료실은 정보학습코너, 멀티미디어 편집코너, 사이버 도서열람코너(현재 망경초등학교 사이버 도서수는 769종, 2904권), 영어책 코너, 정보 검색코너, 오디오-비디오 코너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자 자료실은 아이들에게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닌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통해 최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될 것이다.

또한, 망경 도서관은 올해 학교 도서구입비와 교육청에서 지원된 기본 장서 질 개선 지원비 천 여 만원으로 영어책, 전자책, 백과사전류, 동화책을 1000여권 구입하여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서적을 구비하였다. 현재 망경 도서관은 사이버 도서를 포함하여 만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부임하신 최정기 교장선생님의 노력으로 도서관 주변에는 많은 나무와 꽃이 심어져 나무 그늘 아래서 책 읽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독립 도서관인 우리 학교 도서관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색으로 도장 작업을 마쳐 아이들이 꿈꾸는 동화 속 궁전 같은 모습으로 탈바꿈 하였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즉, 책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도서관에 가야 한다. 도서관의 문턱 넘는 것보다 축구나 인터넷 게임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책장을 넘기며 책을 보는 것을 선호하지만 시대가 변하였다. 다양한 시각 자료에 민감한 아이들에게 도서관에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부한 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학습코너



개관식 테이프 커팅



오디오·비디오코너

## 2) 별빛 아래서 꿈을 키우는 망경 독서 한마당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려면 선생님과 부모님이 항상 책을 가까이 하고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상이다. 그러나 맞벌이 부모님들은 바쁘고 아이들은 학원 수업에 바쁘다. 가족 모두가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 바로 주말 시간을 이용한 ‘별빛 아래서 꿈을 키우는 망경 독서 한마당’이다. 7월 19일 오후부터 시작 된 망경 독서 한마당에서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이 어울려 동화 작가의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북아트를 배우고, 별빛 아래서 영화를 보면서 도서관과 친해지는 기회를 가졌다.

동화 작가 이창규 선생님은 “책을 펼치기만 하면 주인공이 읽는 이와 좋은 친구가 되어 미지의 세계를 안내해 주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흥미가 있어 또 읽고 싶고,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공부도 잘됩니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람들의 바른 삶이나 성공한 일도 본받을 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동화 이야기’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어린이들에게 좋은 동화책을 선택하고 독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족해 질 수 있는 지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다양한 북아트 만들기 체험 시간에는 꼬마 작가들의 숨씨와 열의가 대단하여 저녁 식사 시간까지 넘겨 가며 열심히 작품을 만들었다.

별빛 아래서 전재 음악가에 대한 작품을 보며 학교 도서관이 주는 포근함과 고요함, 안락함과 함께 잔잔한 감동을 느끼며 하루를 정리하였다.

〈 망경 독서 한미당 - 활동 내용 발췌〉

활동주제	활동내용	관련 도서명
미션! 책 만들며 놀자	▶책 속의 보물찾기 ▶작은 책 만들기 ▶책갈피 만들기 ▶부채만들기	① 김나래의 어린이 북아트[마루본] ② 생각이 자라는 책 만들기[예경]
동화 작가와의 만남	▶이창규 선생님(경남아동 문학회 회장)	
영화상영	▶어거스트러쉬 감상	
망진산에서 보물찾기	▶부모님 어렸을 적 소품의 추억을 함께 나누기 ▶가족이 함께 등산을 하며 가족 사랑 실천하기 ▶진주 시내를 바라보며 가족 사랑의 마음 나누기	① 고무신 한 켤레가 전해주는 인생 이야기[파랑새 어린이]
책 속의 모의 운동회	▶수건들리기 ▶찌리잡기 ▶줄다리기	① 우리 놀이 백가지[현암사] ② 열두달 세시풍속[계림]
삶은 옥수수 먹으며 휴식	▶건강 음식을 먹으며 휴식하기	

〈 북아트 배워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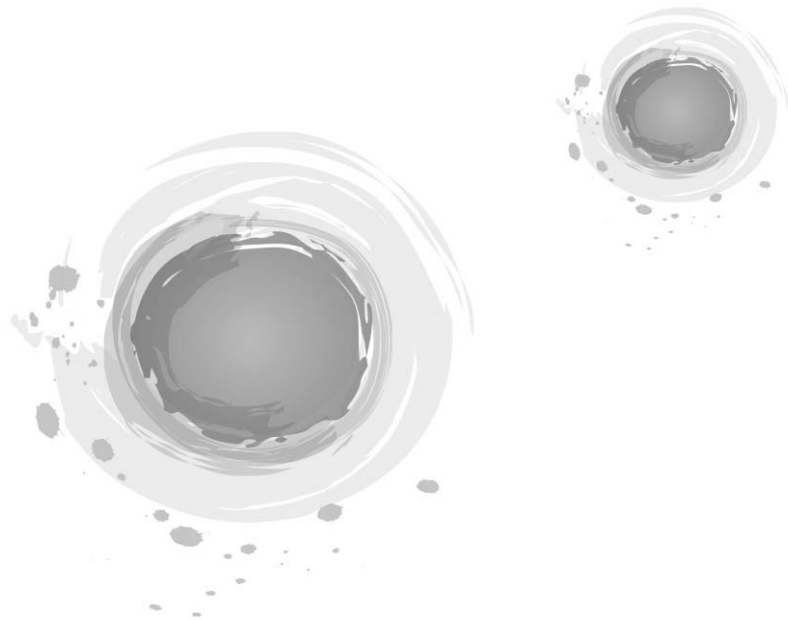


3) 'TAKE OUT' 의아이디어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 시대를 연 'STARBUCKS COFFEE'의 마케팅 전략은 'TAKE OUT'이다. 사람들이 스타벅스 로고가 적힌 컵을 들고 다니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다는 전략이 주요했던 것이다. 이제 도서관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들어야 한다. 물론 학교 도서관이 상업화되길 바란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세대가 변하고 있다. 지금 아이들은 새로운 것, 보다 자극적인 것, 흥미로운 것을 찾는다. 예전에 공부 1등하여 받고 싶은 선물이 맛있는 자장면과 좋은 책 선물 이었다면 지금의 아이들은 자극적인 게임기, 핸드폰 등을 선물 받기 위해 밤을 세워 공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변하는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 좋은 책과 친구를 맺어주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활발히 변화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 3. 맺으며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은 재미있고, 신나고, 즐거운 곳이어야 한다. 이렇게 도서관과 친해진 후  
라야 정독, 다독을 위해 도서관을 찾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도서관은 딱딱하고 지루한 곳이  
라는 이미지를 벗고 즐겁고, 활기찬 곳, 재미있는 책들로 가득한 곳, 매일 들르고 싶은 곳, 세상의 모든 지  
식과 정보가 가득 차 있어 멀리서 바라만 봐도 배가 부른 곳이 되어야 한다. 책은 진화해 왔다. 손으로 쓴  
책에서 인쇄된 책으로 현대에는 전자책까지 등장했다. 진화하는 책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도 이에 발맞  
추어 진화해야 한다. 현재 망경 초등학교 도서관은 독립 도서관으로 질 좋은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그러  
나 전문 사서교사가 없어 학부모 도서 도우미 스물 다섯 분이 오전, 오후를 나누어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다. 아무리 도서관을 담당하는 교사가 열의를 가지고 도서관에 애정을 쏟아도 전문가의 손길은  
다를 것이다. 망경초등학교 도서관에 전문 사서교사의 필요성을 느끼며 ‘문학소녀’, ‘문학소년’들이 도서  
관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모습을 꿈꿔본다. “도서관에서 느껴지는 오래 된 책의 곰팡이 냄새를 사랑  
하고 도서관에 있으면 배가 부른 그 느낌을 가져봐라.”라는 말과 함께 나는 오늘도 도서관에서 꿈을 키우  
는 제자들을 꿈꾼다.



## 어

# 느 시골 초등학교의 기적 - 카게야마 메소드



경남과학교육원 교육연구사 오 세 현

1999년에 「분수 계산이 안 되는 대학생<sup>1)</sup>」이라는 책이 일본에서 출판된 이후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유도리 교육'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또, 2002년에 나온 「『학력저하』의 실태<sup>2)</sup>」라는 조사 보고서는 과거 12년 사이에 초·중학생들의 수학(산수)과 국어의 학력이 낮아졌고, 특히,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과 공립학교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눈에 띄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학교나 교사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지도법을 개발하여 열심히 지도한 학교 학생들은 비록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일지라도 학력 저하가 크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처럼 학원도 없는 작은 시골학교에서 독자적인 학습법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은 사례가 있다. 그 주인공인 카게야마<sup>3)</sup>는 1989년 효고현(兵庫縣) 내의 작은 시골학교인 야마구치(山口)소학교에 부임한 후 지역민들로부터 '본교출신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해서도 성적이 별로 좋지 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듣고, '초등학교 교육이 생애의 토대가 된다,'는 신념으로 동료교사, 학부모들과 협력하여 소위 '카게야마 메소드(Kageyama method)<sup>4)</sup>'라고 하는 독자적인 학습법을 꾸준히 실천하였다. 수 년 후, 카게야

1) 원제목은 「分數ができない大學生」 수학자인 오카베 츠네히루(岡部 恒治) 등이 집필한 책. 이 책에서는 소수과목에 치우친 대학입시 제도로 인해 나타난 대학생의 학력 저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대로는 일본의 장래가 위험하다."라고 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2) 동경대학의 카리야 타케히코교수 그룹이 1989년에 오사카대학 그룹에서 실시한 "학력·생활 종합 실태 조사"를 2001년에 재실시한 조사 보고서로, "국어, 산수(수학) 학력 조사"와 "생활과 학습에 대한 양케이트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사는 12년 동안에 학력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조사 인원(약 2,200명)이 비교적 많고, 학원에 다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학력차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3) 카게야마 히데오(陰山 英男, 1958~)는 유도리 교육이 한창인 시절에 이와는 반대로 상급학교 진학 성적이 신통찮은 시골학교 학생들에게 독자적으로 개발한 '카게야마 메소드'를 실천하여 '야마구치소학교의 기적'을 이루어낸 교육자이다. 2003년에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교장으로 초빙되었고, 현재는 2006년에 개교한 사립 리스메이칸(立命館)소학교 부교장이자 리스메이칸대학 교육개발지원 센터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2006년부터 전 아베 내각이 교육개혁을 위해 설치한 '교육재생회의(Education Rebuilding Council)'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4)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반드시 아침 식사를 통한 건강 회복을 전제로, 「읽기-쓰기-계산」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기본의 반복 학습을 행함으로써 단기간에 어린이들의 학력향상을 기할 수 있다."는 학습법.

마 학급 출신 학생들이 인근 중·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비교적 두각을 나타냈고, 대학입시에서 들어가기 어렵다고 알려진 소위 난관교(難關校)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진학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교육계는 물론 일본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아마 당시에는 온 나라가 유도리 교육과 완전 주5일제 실시 등으로 학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더욱 더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를 보면, 자녀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가정에서도 협조하고 노력해야 할 일이 무척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공교육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사교육비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계와 학부모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카게야마 메소드의 특징은 “아침 식사는 반드시 먹인다. 특히, 빵 보다는 밥을 먹임으로써 배가 든든하여 활기차고 건강해 진다.”, “늦어도 밤 10시에는 재우고, TV는 될 수 있는 한 보지 않게 한다.”, “밤늦게 까지 학원 등에서 공부시키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이다.

또,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읽기-쓰기-계산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읽기 능력은 학력 획득의 전제가 되며, “교과서 음독을 중시한다.”든지, “쓰기는 학력 정착의 열쇠이며, 표현력과 사고력을 증진시켜준다.”, “계산 연습은 학력의 견인차가 된다.”, “가정은 학력을 키우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카게야마류(流) 학습법 중에는 ‘100간잡이 계산(百升計算)’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미리 가로, 세로 각각 11×11의 빈칸을 만들고, 가로줄과 세로줄의 첫줄에 각각 10개씩 적당한 숫자를 나열해 둔다. 학생들은 지시에 따라 이들 숫자를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여 나머지 100개의 빈칸을 모두 메우게 하는 방식인데, 똑 같은 문제로 일정기간 반복하여 매번 그 시간을 기록함으로써 얼마나 계산 능력이 좋아졌는지 체크한다. 이렇게 하면 놀라울 정도로 집중력도 좋아지고, 성격이 차분해 짐으로써 의외로 숨은 능력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sup>5)</sup>이다.

카게야마가 학생들의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학생들의 생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이었다고 한다. 그는 학생들의 체력이나 체격에 약간 불안감이 느껴져서 별 생각 없이 생활환경과 생활태도를 조사해 보았다고 한다. 그 결과, 산과 들만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농촌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반 수 이상의 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빵으로 때우고 있었고 저녁식사를 가족들과 함께 하는 가정이 30%에 불과 했다는 점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아침식사는 밥과 된장국으로만 해 온 그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킬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생활습관이 바르지 못하고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학력 향상은 요원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같이 카게야마는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가정과 학교의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학력의 근본은 생명력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학력향상의 비결은 가정에서의 생활습관에 달

5) 유명한 뇌 과학자인 동북대학 카와시마 유타(川島 隆太)교수가 쓴 『철저 반복! 읽기 쓰기 계산』어린이를 현명하게 하는 뇌의 단련법』에 의하면 ‘계산, 쓰기, 읽기를 하면 우뇌는 물론 좌뇌의 전두엽 부분이 활성화 된다.’고 한다. 전두엽은 ‘사고, 행동 억제, 커뮤니케이션, 의사 결정, 정서 제어, 기억 컨트롤 등’의 일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계산을 하면 뇌가 활성화 되고, 그 결과 아이들의 행동 개선이 일어난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카게야마 메소드가 교육적으로 의미가 크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려 있다고 보고, 각 가정에 어드바이스를 하기 시작했다. 즉, 식사 내용이나 수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언하기도 하고, 직접 가정 방문을 하여 학습 환경개선에 노력하기도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가정에서 학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다음날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은 스스로 준비하게 한다. 또, 학용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챙기는 버릇을 키워준다. 학교에서 분실물이 없는 아이는 부모가 뭐든지 다해주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주변을 잘 챙기는 아이이다.
2. 숙제는 식탁에서 하게한다. 어린이라고 해서 자기 방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학년일수록 공부하는 습관이 붙을 때까지 공개 된 장소에서 충분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방을 만들어 주고, 막연히 “네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라.”라고 해도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지 못한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밀폐된 방보다는 식당이나 거실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하면서 대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학력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3. 숙제는 절대로 엄마가 해 주지 않는다. 카계야미는 어린이들이 매일 집에서 하는 숙제의 양은 ‘학년×15~2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숙제를 엄마가 해주어서는 안 되고, 너무 무관심해도 문제가 된다. 내 아이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힘들어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엄마의 할 일이고 과제인 셈이다. 예를 들어 “우리 애는 분수 계산은 할 수 있지만, 문장 문제로 된 분수 계산은 불확실해요.”라는 등 아이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알고, 학습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담임선생님과 연계해서 지도함으로써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4. 오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아이의 입으로 직접 설명해 보게 하거나 소리 내어 읽힌다. 기억력이 가장 왕성할 때가 7세부터 12세까지로 알려져 있다. 음독은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고, 기억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덩벙대고 실수를 자주하는 아이일수록 가정에서 매일 교과서를 음독시키는 것이 좋다.
5. “공부해라!”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는다. 학력이란 인간의 총력전이기 때문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이야말로 성적이 향상된다. 즉 수면을 충분히 취함으로써 기력이 충실해지고 학교 수업에 집중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6. 거실에 각종 도감을 놓아두자. 도감은 눈으로 보거나 읽기만 해도 즐겁고 흥미를 가지기 쉬운 책으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탄식하기 전에 책을 읽고 싶어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7. 아이들 앞에서 사전과 백과사전을 찾는 모범을 보인다. 아이들에게 사전 찾는 법을 꼭 가르쳐야 한다. 모르는 것을 자기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전이다.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난(難)자(字)가 들어가는 단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등의 문제를 내고 아이들이 사전을 찾아서 대답하게 하는 놀이를 하거나, 좀 부담은 되지만 집안 곳곳의 적당한 공간마다 사전을 비치해 두고, 엄마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사전에서 찾아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서당 개도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고 하듯이.



8. 학원에 다니면서 기능을 배우는 경우에도 주 3일을 넘지 않게 한다. 설령 아이가 배우고 싶어 해도, 주 3일 이상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아이의 자주성이 없어진다. 아무리 전문적인 지도자로부터 배운다고 해도 그 시간동안 아이들은 졸곧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행동하게 된다. 이렇게 지시만 받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 버리고 만다.
9. 아이들과 주 1회는 도서관에 간다. 아이가 어릴 때는 책을 많이 읽어 주는 것이 좋지만, 좀 자라고 나면 책을 통해서 스스로 시야를 넓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이처럼 책과 친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사서와 친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책을 좋아하고 문장을 읽는 능력이야말로 학력의 기초가 되고, 언어 능력과 이해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10. “몇 시까지 해라.”라고 시간을 정해 준다. 인간은 온몸을 통해서 배운다고 한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각종 단위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이 책상 높이는 60cm야.” 등으로 단위와 함께 거리 감각을 익히도록 한다든지, 저울이나 계량컵을 사용하여 요리를 함께 하는 것도 좋다. 또, “짧은 바늘이 「6」을 가르치면 「여섯시」야. 여섯시에는 목욕을 할 거야.”, “세시에 외출하니까, 준비해”라는 식으로 생활속에서 시계 보는 법과 시간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배려한다. 결국 학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풍부한 생활체험이다.
11. 아이들을 데리고 박물관에 가자. 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동과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보물창고이다.
12. 지구의를 TV 옆에 놓아둔다. 매일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나라의 이름을 모르면 이해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다. 지명이나 국명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도에서 확인하는 방법이다.
14. 연필을 바르게 잡게 한다. 일본에서 초등학생의 90%가 연필을 바르게 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연필 잡는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글씨를 바르게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쉽게 피로해지고 그 결과 집중력도 약해진다.
15. ‘백 칸잡이 계산’을 비롯해서 읽기-쓰기-계산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하여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한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반복해서 기초가 확실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매일 계속하여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아이들은 자신감을 갖는다. 이렇게 단순한 계산 연습을 집중적으로 행하면 뇌가 활성화 된다. 또, 쓰기 연습을 통해 신문에 투고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부

## 적응 청소년과 학교의 사명

창원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무국장 노미애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

흔히 성인들은 학생들이 학교를 적응하여 다니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게으르거나 인내심 부족과 같은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질 부족이 부적응 행동의 가장 직접적인 일차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들이 자질이 없어 보이는 직접적인 이유는 이들이 처해 있는 지나치게 열악한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있다. 이들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유능한 모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이나 무책임, 혹은 무절제와 같은 부적응 행동의 모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혼했거나 별거한 경우가 자주 있으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잦은 불화로 가정의 안정감이 심각하게 붕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으로도 이들의 가정은 극도로 열악한 경우가 많다.

물론 환경적 요소 하나 하나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하나하나의 요인들이 복잡적이고 지속적으로 작용할 때는 학생이 자신의 의지와 힘만으로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인간의 적응 능력을 평가할 때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한편 보통의 능력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학생을 평가할 때 보통 또래학생들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상식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어떤 환경조건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하기를 기대하고 지도를 한다면 학생은 선생님에게 계속 부족한 모습, 불성실한 모습, 무책임한 모습, 열성이 부족한 모습, 인내가 부족한 모습, 장래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교사를 비롯한 성인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학업성취가 극히 저조하고 수업태도가 무성의하고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문제행동을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능하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학생들처럼 적응적으로 성공적으로 살고자 갈망한다는 것이다.

철수(가명)는 어른들을 무척 골치아프게 하는 아이다. 철수의 문제행동은 수업 중에 고함지르고 나가버리기, 금품갈취하기,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때리기), 유아적으로 행동하며 억지부리기 등 많은 사람들을 당

혹케한다. 철수는 부모의 이혼이 자신을 버린 일이라 생각하며 부모에 대한 분노가 무척 많다. 친구들도 자신을 이용할 뿐 무시하고 싫어한다. 그런 철수가 어느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가 이혼하고 가버려서 배신감이 너무 커서 용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한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요...(중략)...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도 결국은 우리가 소중하지 않으니까 헤어진거잖아요, 나도 잘하고 싶고 그래서 노력도 하는데... 잘 안되요, 지금은 친구들(노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관심은 면도 있지만, 근데 지금처럼 살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벗어나고 싶는데 다른 친구들은 나랑 안놀아 주잖아요, ‘문제아’니까... 지금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나는 왕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자꾸 어울리게 되고,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 또 사고치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중략)...제가 제 성질을 못참는데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아직 철이 안들어서 어렵고 있지만 나도 잘하고 싶어요, 잘 할거예요.”

철수의 이 다짐은 별로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철수가 무조건 잘하겠다는 다짐만을 믿고 가기에는 좌절적 환경이 너무도 많다. 즉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힘으로는 현실적인 곤란과 내면적인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철수를 끊임없이 무력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친구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게 할 것이다.

철수와 같이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적응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삶의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다른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 배려하는지’, ‘화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등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 가정에서 학습되지 못한 이 부분들을 학교의 자원들이 협력하여 지원하게 되면, 학교의 교정적 효과는 극대화 되어 사회적으로 건강한 인력을 배출하는 학교의 중요한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 재해로 인하여 재산의 손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보상제도가 있나요 ?

▶ 주택 피해시 지급하는 『재해부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경우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재해부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 주택의 피해 정도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비 고
•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보수월액의 6배	재해발생 당시 직급· 호봉에 의한 보수월액
• 주택의 1/2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보수월액의 4배	
• 주택의 1/3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보수월액의 2배	

※청구시효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임(단, 2005. 7. 1 이전 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임)

① 상시거주하는 주택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해주택과 주소지가 같아야 보상금 지급 대상

공무원 또는 배우자 소유가 아닌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소실 또는 유실되었을 경우는 공무원이 피해주택에서 상시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이 되어야만 보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 거주라 함은 주택이 실제로 공무원의 생활 본거지가 됨을 의미하므로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와 피해주택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② 무허가 건물도 재해부조금 지급대상이 되나요?

재산세과세증명서에 의해 공무원소유의 주택임이 확인될 경우는 지급대상

재해부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소유주, 건물용도, 건물면적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도 재산세과세증명서에 의해 공무원 소유의 주택임이 확인 되고, 화재증명원상 피해면적이 동 주택면적의 1/3이상 소실되었다면 재해부조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③ 임대한 주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

거주와 상관없이 소유관계만 확인 되면 지급 대상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 주택의 경우 상시 거주와 상관없이 소유관계만 확인이 되면 재해부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대한 주택이 1/3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재해부조금이 지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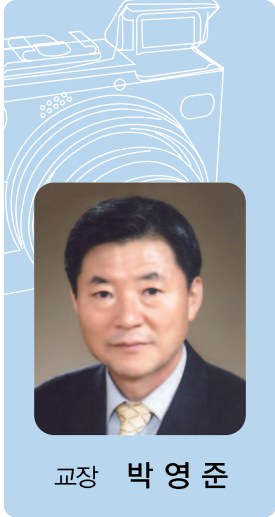
④ 재해부조금 신청방법은 ?

국가직은 공단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에게 신청

재해부조금청구서에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해, 홍수, 폭우, 폭설 등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정부로부터 수령하였을 경우는 재해부조금청구시 해당 사항(예 : 수재의연금, 화재의연금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문의 : 1588-4321



교장 박영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초등학교(교장 박영준)는 최근 학부모와 함께 하는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운영하여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교육단체들이 몰려 주목받고 있다. 통영초등학교는 통제영 세병관에 인접한 구교사의 터전에서 1908년에 개교하여 100년의 역사 속에서 극작가 유치진, 시인 유치환, 외교관 김용식, 화가 전혁립, 음악가 윤이상, 시조시인 김상옥, 시인 김춘수, 소설가 박경리 등을 배출한 문화예술계의 문화예술을 꽃 피운 지역의 명문학교이다.

통영초등학교는 통제영 복원공사로 인해 지난 2005년 현재의 무전동 신사가지로 학교의 터전을 옮겨와 100년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Edu Happy eye>라는 슬로건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펼쳐 창조적 공존으로 희망을 열어가는 통영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 부모 수첩으로 자녀교육 디딤돌 놓기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지고 담임교사로부터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교육정보(학사달력포함)와 자녀교육 지도 자료(자녀와의 대화방법, 학습, 진로, 체험학습 등)를 종합한 행복한 어린이를 위한 <부모수첩>을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부하고 학교와 가정이 연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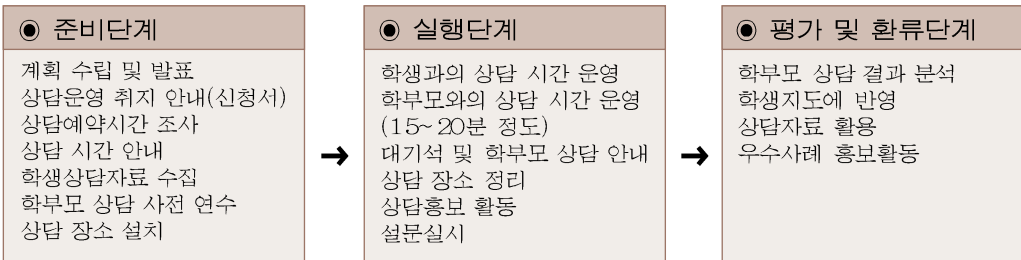


## 2. 학부모 예약상담제 운영으로 소통의 문화 만들어가기

학부모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보 공유를 통해 학습 및 생활, 진로지도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가. 세부내용

- 1) 일시 : 1기 / 2008년 5월 27일(화), 2기 / 2008년 6월 16일(월) 15:30~21:30
- 2) 대상 : 1기 / 1, 2, 6학년 희망 학부모, 2기 / 3, 4, 5학년 희망 학부모
- 3) 장소 : 급식소
- 4) 상담 내용 : 학부모의 상담요구내용, 교과학습발달상황, 교우 관계, 건강 상태, 학습 진도, 생활(학교, 가정)태도 등 학생지도 시 도움이 될 내용
- 5) 단계별 활동 내용



### 나. 운영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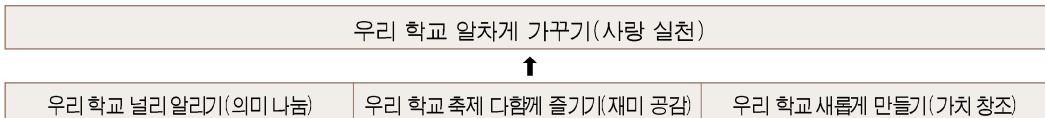
- 1) 참여 학부모 수 : 1기(1,2,6학년 학부모 116명), 2기(3,4,5학년 학부모 120명)
- 2) 예약상담제 운영 분석  
 예약상담제 만족도 (88% 아주만족), 예약 및 오후시간 운영(69% 아주만족)
- 3) 학부모 반응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의 장단점을 알게 되었다.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며 자주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 3. <I love 통영>으로 자긍심 높이기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아름다운 학교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함께 참여하는 <I love 통영>을 전개하여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가. <I love 통영>개요



나. “사랑하는 학교”이벤트 공모

1) 공모 내용

- 가) 우리학교에 대한 기발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제안 “통영초등학교는 □다.”
- 나) 우리학교에 대한 관심과 아름다운 학교로 거듭나기 위한 “보물 공모”
- 다) 우리학교 정책 연구를 위한 상담홍보캠페인 “상담이란?”
- 라) 우리학교 사랑 메시지 남기기

2) 공모 결과

- 가) I Love 통영 이벤트 공모 참여자 수 : 657명(학생, 학부모, 교사 포함)
- 나) I Love 통영 이벤트 공모 우수작<예>

영역	□이다	이유
우리학교는	오케스트라	각자 특색 있는 악기들이 모여 웅장하고 조화로운 음색을 만들어가듯 우리학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니까
학교 보물은	선생님과 우리들의 눈망울	통영초등학교의 전통을 소중하게 이어 나갈 선생님과 우리들의 눈망을 속에는 늘 도전과 열정이 가득 담겨 있어서

다. “학교 축제 즐기기”

개교 100주년을 맞은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고, 각계각층에서 국가 발전에 공헌한 선배들의 생애 탐구로 미래의 큰 꿈과 희망을 다지며,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통영초등학교>의 빛나는 전통과 자랑스러운 학풍을 창달하기 위해 개교 100주년 기념 축제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10월에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학교사랑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일	요일	축제 내용
6/20	금	종합학예발표회(1,3,5학년)/강당, 종합학예발표회(2,4,6학년)/강당
6/21	토	모교사랑 체험활동
		09:30~10:30 : 저학년 : 학교역사관 탐방, 고학년 : 선배님과과의 만남 10:30~12:00 : 저학년 : 우리 학교 그리기, 고학년 : 백일장
6/23	월	100주년 기념식 식전 공개 행사(사회: 전교회장단)/운동장
		1마당》100년 역사를 맞이하며(품물놀이), 2마당》축시 낭송
		3-5마당》문화예술공연, 6마당》100년 역사 그 씩씩한 기상과 기백(대동놀이)
		개교 100주년 기념식(사회: 교무부장)/운동장
		《개교 100주년기념 열린 놀이 한마당》 제1부》 여는 마당 제2부》 댄스와 함께 즐겨요 제3부》 다 함께 즐겨요



학예발표회




종이비행기 날리기



선배와의 대화


### 4. 친절 3운동으로 더불어 사는 삶 익히기

친절이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행동으로서 친절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이 어려움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본교에서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밝은 미소>, <정다운 인사>, <다정한 말하기> 통영어린이 친절3 운동을 연중 전개하고 있다.

친절 3운동	실천 과제	실천 내용
	가. 밝은 미소 짓기	만나면 미소 짓기 30초 웃고 하루 시작하기 마음 챙김 시간 갖기
	나. 정답게 인사 나누기	집을 드나들 때 가족과 인사하기 등굣길에서 친구 만나면 정답게 인사 나누기 교실에서 선생님께 인사드리기
	다. 다정한 말씨로 대화하기	들어서 기분 좋은 말하기 칭찬 캠페인 전개 우정의 속삭임 노트

### 5. 아침소리 기획단 운영으로 교육적 경험 나누기

다양한 교육 사례들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모든 학생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 <아침을 여는 소리>를 운영하여 왔으며, 2008년도에도 교사(70명), 학생(100명), 학부모(70명) 기획단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직	안내문→희망자 접수→ 날짜 매정→ 발대식(운영안내)→활동→자료집 발간	
구성	교원 : 70명 / 학생 : 4-6학년 100명 / 학부모 : 80명(희망자)	
기간	2008. 04. 01. 부터 연중 매일(휴일 제외)	
타재	학교홈페이지 매뉴 / <아침을 여는 소리> / (학생,학부모,교사) 게시판 글 탑재	
내용	교육방법, 교육정보 공유, 문제 해결 방향, 나의 주장, 자녀교육 경험 등	
기타	아름다운 댓글 달기	
타재 목록	교사 지금 여기에 학습지도연구대회를 마치고 행복한 교실을 꿈꾸며 탑재48건	학부모 안기기, 안아주기 가족이 함께 해요 아침밥을 꼭 먹이자 탑재60건
		

### 6. 학교상담실 운영으로 심리적 배움터 제공하기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스스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즐겁게 생활하도록 학교상담실을 리모델링하여 Happy-I 집단상담과 개인상담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상담학교를 해마다 개최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상담수업



상담실



상담신청함



집단상담

#### 통영초등학교는 위와 같은 '창조적 공존'을 통해

학교와의 만남, 학생들과의 만남을 예방과 발달측면에서 접근하여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준비된 학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주는 등 창조적 공존으로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고 있다.





## 발표력을 신장 시키려면...

밀양 초동초등학교 교사 장 창 표

### 1. 시작하며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맡아 지도하는 학생들을 교과 공부도 고루 잘 하고 올바른 사고로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학생으로 만들고픈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런 일들은 교육 전반의 중요한 관심사로 학교나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매일 매일 학생들과 여러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고 수많은 언어들의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민감하게 다가오는 문제는 개개인의 의사표현능력 즉 발표력이다. 언어로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나타내는 행위는 어쩌면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을 이루는 요소임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일이다.

교육 기능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학교교육이 사회적역력을 지닌 훌륭한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고 볼 때, 사회의 바람직한 적응을 위한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자신의 의견을 논리 정연하게 피력할 수 있는 발표력 신장이다. 나아가 민주사회를 지탱해 주는 인프라도 역시 발표력을 기초로 하는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학습활동이나 자치활동, 기타 여러 활동에서 발표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 대부분 자신의 감정이 이성을 앞지르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는 소홀하며, 발표 내용도 단편적인 지식의 나열에 그치거나 논리성과 객관성도 많이 부족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학생들이 어엿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리라 생각되며 무엇보다도 기초와 기본을 지도하는 초등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심정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지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어린 시절에 바람직한 발표능력을 신장시켜 토론의 바탕을 형성하는 문제 해결력을 지닌 자주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일조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한 바, 그 동안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한 경험과 여러 선후배 선생님들의 조언,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조력자(교사, 부모 등)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발표력 신장을 위해서는

학생지도와 관련된 학부모와의 면담에서 '아동의 표현력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길 원하거나 매사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발표력 향상과 자신감은 따로 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

발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선결 조건이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일이다. 발표력은 인간의 능력 중 언어지능(Linguistic Intelligence)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언어로써 표현되는 활동들은 모두가 자신감에 큰 영향력을 갖는다.(H. Gardner 1996) 그러기에 아동들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심리적인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는 세심한 주의를 꼭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조력자(교사, 학부모 등)는 아동이 얘기하는 내용이 설령 객관적·논리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아동의 입장이 되어 수용하는 태도(대화 내용과 관련된 진지한 반응과 관심)를 갖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아동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말하기에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되고, 다음 기회에는 최초의 성취감을 떠올리면서 점차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어렸을 때에 아이들의 눈을 통하여 들어오는 사물이나 풍경들은 뇌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어 이미지가 형성되고 이는 곧 언어로 형상화된다. 그리하여 시각적 영상이 언어로 신호화되어 뇌리에 과지되어 있다가 발표의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표출되어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 각종 전시회나 공연, 여행 등의 다양한 볼거리를 통한 공간의 이동으로 인지적 갈등을 조장시켜 발표를 위한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많은 청각적 경험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예전의 아이들은 저녁을 먹은 후 화롯가에 빙 둘러앉아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옛날이야기를 들으면서 긴 겨울밤을 보내기도 하였고, 많은 식구들이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가족간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시간들을 경험하며 생활했다.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가 담겨 있는 옛날이야기를 통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해지는 좋은 계기와 다양한 이야기 거리를 마련하였지만, 요즘의 현실은 핵가족화의 영향과 전자매체의 발달로 인한 TV, 컴퓨터, 오락 등의 개인 중심의 놀이로 가족간에 이야기를 주고받을 시간과 여유를 상실한 실정이다. 특히 TV의 막강한 영향으로 자음적 사고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로 인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사고의 경직화로 소신껏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의 감각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하면 나머지 다른 감각기관으로 다른 기능이 집중되어 남은 감각기관은 더 발달된다고 한다. 그래서 장님의 귀는 다른 누구의 귀보다 듣기능력이 탁월하다고 한다. 따라서 상상력이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눈을 감고 주의를 집중시켜 사물이나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익힐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양한 들을 거리를 많이 제공해주어 학생들로 하여금 귀 기울여 듣는 경험인 지적 자극을 통하여 발표의 소재를 많이 축적 해두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넷째, 대화의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언어로 표현하기 곤란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언어 또는 문자로 표현이 가능하였기에 인류의 역사가 면면히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대화가 아닌 대결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읽은 책의 내용을 간단히 발표하기, 생활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1분 동안 발표하기, 밥상머리에서 가족과 간단한 대화하기 등 가족이나 친구간의 일대일 또는 일대 다수간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 언제 어느 곳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발표 능력이 자연스럽게 전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비노소 할 것 없이 노래를 못하는 음치(音癡)보다는 대화를 제대로 못하는 화치(話癡)가 더 많다고 한다. 이에 비해 외국 사람들은 화치(話癡)보다는 음치(音癡)가 더 많다고 한다. 이는 우리의 문화가 대화보다는 노래문화에 익숙해져 있어 모이기만 하면 짧은 몇 마디의 대화가 오가고는 곧장 노래방으로 직행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문화 때문이다. 따라서 노래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의 학생들에게 발표, 특히 대화와 토론을 생활화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그 능력의 향상을 위한 일이 더 절

실하고 중요한 사안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발표를 잘 하되 책임 있는 발언을 하도록 해야 한다.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IMF라는 괴물에게 털미를 잡힌 일이나 최근 들어 쇠고기 수입문제와 독도 문제의 해결책이 미흡한 것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느라 급급한 나머지 문제의 근본을 제대로 보지 못해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를 악화시켰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무 말이나 분별없이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결과를 고려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자기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남의 의견도 존중하고 자기의 의견과 비교해 가면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간에게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도 바로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잘 하라는 뜻에서 일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자기의 생각을 잘 발표하되, 그에 따른 책임도 감수할 줄 아는 확고한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섯째,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하여 이야기 거리를 많이 저장해 두도록 해야 한다.

21세기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여 수량적으로 힘을 가늠하던 시대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그 지식을 원천으로 부(富)를 발생시키는 지식정보화시대로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으므로 이에 잘 대처하여 정보의 바다 속에 빠져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정보마인드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서적을 탐독하여 생산적 정보를 항상 저장해둬으로써 발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 있게 발언할 수 있는 준비된 발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 3. 맺으며

위에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 정연하게 피력하고 나아가 민주사회를 지탱해 주는 인프라인 발표능력 향상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았지만 그 방안들은 개인이나 집단의 성향 및 각각의 처한 입장 등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으리라 사료되므로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발표 능력은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인 동시에 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기반이다. 민주주의의 한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도 하나의 의견을 놓고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후 투의와 의결을 과정을 거쳐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원리이므로 여기서도 발언 능력은 지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발표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준비를 통하여 서서히 증가하므로 멀리 보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의 풍토나 분위기도 바람직한 발표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토론 및 토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하겠다. 아울러 학교, 가정, 사회의 삼위일체 된 공동사고와 상호협력력을 통하여 21세기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대화의 기회를 가급적 많이 마련해줌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대결이 아닌 대화하는 사회를 건설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쌓는데 선구자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chnpyo@hanmail.net>



## 내가 만난 대현군자

진주여자고등학교 학부모(경상대학교 명예교수) **려 증 동(呂增東)**

내 손녀 명덕이가 진주여자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담임선생 김행선 교수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학부모가 지은 글을 모으고 있습니다. 명덕이 할아버지 글을 받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36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1972년 7월에 국립 진주농과대학 학교이름이 <경상대학>으로 고쳐졌습니다. 문교부장관 고시(告示)가 나온 것입니다. 경북대학이 ‘경’을 <k>로 시작해서 <kyeong>으로 적고 있으니 우리도 <k>로 시작해서 <kyeong>으로 적자고 하는 것이 만장일치로 되었습니다.

나는 확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마흔 살이었습니다. “확장님, G로 시작해서 GYEONG으로 적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여쭙고 난 뒤에 연필로 적어가면서 길게 설명했습니다. 확장 형성해(邢誠海:수의학 박사) 선생은 틀린 것을 싫어하는 분이어서 듣기를 잘하는 따뜻한 어른이었습니다. 설명글은 길어서 뒤에 적기로 하겠다고. 확장이 듣기에 열중하더니, 고개를 들고 “려 교수 주장이 맞는 것 같소. 나는 그대 말을 믿소.”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놀라운 기쁨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확장은 학교 영자(英字) 신문에 GYEONG으로 적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세종글자 ㄱ>을 <G>로 표기한 대학은 경상대학(慶尙大學)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형성해 선생은 난생 처음으로 만난 대현군자(大賢君子)이었습니다. 건국대학, 경기대학, 경북대학, 경희대학, 계명대학, 국민대학이 모두 <ㄱ대학>인데, 모두 <K>로 표기하고 있는 당시 1972년에 형 확장이 려증동이 주장하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G>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품성이 선각자(先覺者)에 있었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길게 여쭙었던 것을 이제부터 적기로 하겠습니다.

「리승녕(서울대 교수자)이 주장하기를 <ㄱ>은 <K>로 적고, <ㄷ>은 <T>로 적고, <ㅂ>은 <P>로 적고, <ㅋ>은 <K'>로 적고, <ㅌ>은 <T'>로 적고, <ㅍ>은 <P'>로 적고, <ㅈ>과 <ㅊ>은 모두 <Ch>로 적으라고 했습니다.<ㄹ>에 대해서는 리승녕이 <R>과 <L>사이를 구별하지도 못했습니다.

려증동이 주장한 것은 이러했습니다. <세종글자 ㄱ>은 <G>로 적고 <ㄷ>은 <D>로 적고, <ㅂ>은 <B>로 적고, <ㅈ>은 <J>로 적고, <ㅊ>은 <Ch>로 적고, <ㅋ>은 <K>로 적고, <ㅌ>은 <T>로 적고, <ㅍ>은 <P>로 적고, 첫소리 <ㄹ>은 <R>로 적고, 받침소리 <ㄹ>은 <L>로 적어야 바르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라고 여쭙고 난 뒤에 이어서 리승녕 주장에 최현배(연세대:교수자)가 찬성했고, 리희승(서울대:교수자)이 찬성했습니다.」여기까지가 려증동(1933~ )이 형 확장한테 설명드렸던 말이었습니다.

리승녕(1908~1994)이 1954년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95년부터 정부가 <로마자 표기 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5년 걸려서 2000년 7월에 책을 내었습니다. 책이름이《로마자 표기 용례사전》이었습니다. 문화부

장관 박지원이 발간사를 지었습니다. 문화부가 그 책을 나한테 보내어주었습니다. 책표지에 <부산 Bu san>, <대전 Daejeon>, <광주 Kwangju>, <제주 Jeju>로 된 그림표가 그려져 실렸습니다. 그림표를 보니, 리승녕 주장은 모두 폐기되고, 려증동 주장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꺼안고 사필귀정이 늦었다고 하고는 붓을 들었습니다. 책 속표지에 <경상대학은 1972년에 이미 Gyeong으로 표기했다. 선각자 대학으로 되었다. 2000년 8월 Ryeo 쓰다>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책을 펴보니, 리승녕 주장인 경산 역 <Kyeong>이, 려증동 주장대로 <Gyeong>으로 바로잡혔고(쪽200), 리승녕 주장인 진주 역 <Chinju>가, 려증동 주장대로 <Jinju>로 바로잡혔습니다(쪽212). 통쾌 통쾌였습니다.

2005년 겨울, APEC 12개국 대통령 급(Top) 회의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부산(Pusan)으로 될 뻔했던 것을 부산(Bu san)으로 바로잡힌 것을 세계만방에 알렸습니다. 다행이고 다행이었습니다.

대학교 이름으로 들어가 보니, 골장 고쳐서 바로잡은 대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구대학이 TAEGU(태구)로 표기했던 것을 DAEGU(대구)로 바로 잡았습니다. 고칠 것이 없는 대학이 경상대학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형 학장이 대현군자였기에 이룩된 공적이었습니다.

<Gyeong>이 옳다라고 되었을 때, 형 학장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호라. 그대는 소생이 난생 처음으로 만나게 된 대현군자였습니다. 대현군자가 아니고서는 1972년 당시에 세종글자 <ㄱ>을 <G>로 결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호라. 그대는 인간세상 속물이 지니는 뽐내기가 티끌만큼도 없었소이다. 그대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선인(仙人)처럼, 진술하고 겸손했소이다.



## - 학생상담 자원봉사를 하기 까지 -

마산여자고등학교 학부모 이 성 영

뜻밖에 경남 고성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승계 받으면서 나의 기쁨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사회복지법인의 승계과정에서 낯선 지역정서, 새로운 환경과 상식을 벗어나는 조건으로 인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열정만 가지고 덤빈 이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미친 영향은 생각외로 컸다. 딸아이가 그 당시 초등 5학년이었는데, 어린이집 관계로 창원에서 마산으로 전학을 시키게 되었다. 갑자기 변화한 교육 환경과 예전과 같이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나의 바쁜 생활들로 인해 딸의 마음에 작은 폭탄의 싹을 자라나게 하고 있었다. 그 때 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5학년이 사춘기가 오리라고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거니와 내 자식이 그렇게 힘들어 하리라곤 꿈에도 생각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힘들어 하던 딸의 마음을 보다 이해하고 헤아리기 위해 상담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방법 및 상담심리를 공부하게 되었고, 2005년 박사수료를 한 후 사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하여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운영 목적과 내 딸아이가 마음으로 힘들어 했던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첫 상담을 여중학교 6명의 집단 상담부터 시작하였다.

상담을 진행할수록 아이들은 나에게 영원히 잊혀 질 수 없는 아이들로, 내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낳은 딸들로 다가왔다. 가정환경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학생들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았다. 상담을 한 아이 6명중 5명은 조모나 계모와 살고 있었으며 중학교 1학년이 동생들 챙기느라 먹는 것, 입는 것 등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해결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TV에서 본 소말리아, 어려운 북한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상태였다.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점은 현행의 복지제도는 수요자의 접근성이 어려워 그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 해본 결과, 기초 생활 급여 제공만으로는 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우며 어릴 때부터 자라온 가정환경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된 생활습관을 소거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

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 상담자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은 봉사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아이들의 입장에서 대화하고 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심화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학생상담자원봉사를 하면서 나 자신이 많이 느그러워졌으며 부모가 던지는 잘못된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자괴감과 좌절과 수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끝으로 학생 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상담자,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협력하여 진정으로 아이를 생각하고 올바른 인격체로 대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상담을 하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 주변의 상황이 아이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환경의 개선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한별유치원을 떠나며

창원한별유치원 학부모 조영순

1년 반전 어린이집을 다니던 우리 딸 예인이가 유치원을 선택할 시기가 되었을 때, 직장을 다니고 있던 저는 유치원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린이집 체육대회에서 우연히 한별유치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잔디밭을 가지고 있어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천국 같은 곳이며, 특히 종일반은 오전과 오후로 선생님이 바뀌어서 아이들이 지겹지 않게 종일반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적어도 유치원까지는 맘 편히 뛰어노는 게 최고라는 저희 부부의 생각에 딱 맞는 유치원이었습니다.

처음 유치원 생활을 시작했을 때, 약 한 달 동안 딸아이는 거의 녹초가 되어 차에 타자마자 잠에 빠지곤 했습니다. 유치원 생활이 얼마나 힘들기에 하며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 보내는 계획을 보니, 아이가 피곤해 하는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하는 등산, 야외활동, 그 외 현장학습 등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산책으로 단련되어 있었다고 해도, 그 많은 활동들을 따라 하기에 처음엔 힘들었나봅니다. 한 달 정도의 단련기가 지나고 딸아이는 정말 건강해졌습니다. 힘들다고 투덜대던 등산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등산 노래를 불러 하루는 주말에 온 가족이 정병산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했던 저는 힘들어 겨우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딸아이는 거의 뛰다시피 남편과 비슷하게 산행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딸아이가 “엄마는 이게 힘들어? 난 괜찮아.” 하면서 정삼까지 혼자 힘으로 올라가더군요. 유치원에서 아이들 데리고 등산해 봤자 생각했던 저는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치원 꼬마 20명 넘게 데리고 등산을 하다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길까요? 그런데도 한별유치원 선생님들은 좋아서 하는 일이라며 아이들과 함께여서 행복하다고 하시더군요. 아직도 그 말을 하실 때의 선생님의 환한 표정이 떠오릅니다. 그런 활동 덕으로 만성적인 비염으로 고생하던 딸아이는 7살이 되면서는 거의 병원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별유치원은 가끔 부모님께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아침에 유치원 보낼 때는 꼭 밥을 먹여주세요. 아이들 앞에서는 행동을 조심해주세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치원 방문 시 꼭 부모교육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잔소리가 좀 듣기 싫었는데, 이런 잔소리가 부모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아이는 아침밥이 먹기 싫다고 투정부리다가도 선생님이 꼭 아침을 먹으라고 했다면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가끔 나쁜 행동을 하다가도, 선생님 이름이 나오면 딸아이의 태도는 금방 달라집니다. 딸아이는 지금도 선생님 얘기가 나오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선생님들을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나쁜 행동을 하면 선생님이 무섭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이런 따뜻함과 엄격함 속에서 딸아이는 너무나 좋은 유치원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올해 초 남편의 미국과견이 결정되고, 저희 부부는 딸아이에게 7월쯤 미국으로 가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딸

아이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떠나는 날이 다가오니 유치원을 졸업하고 가자고 하더군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가기 싫다고 슬퍼했습니다. 막상 떠나는 날 유치원은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보고 있는 제가 막 눈물이 나면서 미안한 맘이 들더군요. 이렇게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떠나 미국으로 온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난 후,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새삼 7살 아이와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소 느낍니다. 직장생활을 핑계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딸아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아이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오늘따라 직장에서 아이 걱정을 한 번도 하지 않게 해주신, 매일 아이들과 함께여서 행복하다는 한별유치원 선생님들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산책을 다녀와서 발견한 것을 알아 보아요〉



〈텃밭에서 식물 관찰하는 아이들〉





## 독서 토론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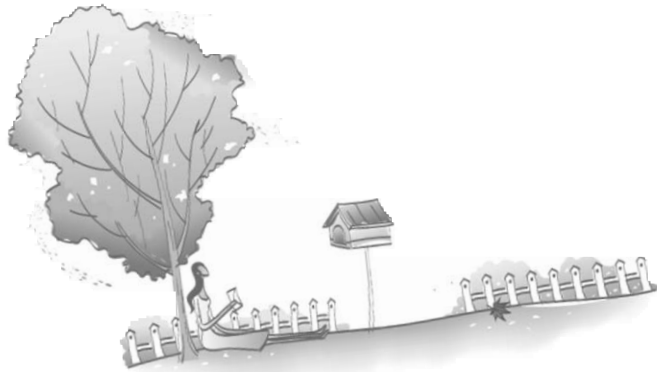
양산 양주초등학교 6학년 양 보 원

지난 2007년, 나는 양산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독서 토론 대회 결승을 관람하러 갔다. 그 곳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언니 오빠들이 토론을 펼쳤다. 그 모습이 나에게 정말 멋있어 보였다. 그래서 나도 6학년이 되면 꼭 이 대회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어느덧, 난 6학년이 되고 예선을 거쳐 독서 토론 대회 선수로 선발되었다. 노현석 과 어머니께서 우리 어머니와 친한 친구 사이이신 최윤지가 같이 독서 토론 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윤지와 나는 어릴 적에는 친한 사이였는데 윤지가 이사를 감으로써 멀어지게 되었다. 그 후 윤지는 다시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렇지만 오히려 '어릴 적 친했는데 지금도 친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윤지를 볼 때마다 떠올라 반갑게 인사하지도, 못 본 척 하지도 못 하고 어색한 사이이다.

본격적으로 연습이 시작되어 방과 후 2-1반에 남아서 책의 내용을 정리하던 날이었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자습을 시키시고 잠깐 자리를 비우셨다. 그런데 윤지가 너무 떠든 것이다. 나는 빨리 하자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우리는 돌아오신 선생님께 혼이 났고, 나는 화를 내고 말았다. 이때부터 난 윤지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후에도 윤지와 나는 여러 번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 토론을 할 때에도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윤지가 얼른 말을 해 버렸다. 나는 그런 윤지가 알미웠다. 그럴 때 마다 나는 화가 났지만 꼭 눌러 참았다. 만약에 내가 화를 내기라도 하면 윤지의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 사이가 나빠질까 해서였다. 역시 옛 말은 틀린 것이 없다. 참으면 병이 된다는 말처럼, 화를 묵혀두고 있자, 나는 우울해 지고 5학년 때부터 기다렸던 독서 토론을 할 의욕조차 없어졌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께 내 마음을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참을 필요 없다며 날 위로해 주셨다. 그리고 윤지가 내가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어릴 적부터 하고 싶은 것은 확실히 하는 성격이라 그렇다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서 그렇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씀 해 주셨다. 그러자 지난 기억들이 떠올랐다. 때로는 쓸 데 없는 소리로 들렸던 윤지의 말이 분위기를 띄워 주기 위해서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은 내 마음을 알고 날 위해 주기도 하였다. 윤지는 언제나 나를 챙겨 주려고 하였던 것인데 내가 그것을 간섭으로 생각해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그리고 보니 윤지는 나와 친해지고 싶어 했다. 우리 집에서 숙제를 같이 하자고 와서는 이야기만 하고 물건을 다 어질러 놓은 것도 그런 걸지도 모른다. 나는 얼굴도 모르는 아이의 이야기를 내 호응이 시큰둥해도 열심히 하는 것 또한 그렇다. 윤지는 나를 보고 기쁨을 먼저 느꼈는데 나는 난감함을 먼저 느낀 것이 미안했다.

생각을 바꾸자 내 마음도 더 편해졌고 의욕도 다시 생겨났다. 맞지 않는 점은 서로가 맞춰 나가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빗장을 열어야 하는 것이다. 친구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다. 토론 대회 연습은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를 상대로 토

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선생님들과 토론을 하는 것이 조금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점점 자신감도 생겼고 독서 토론에 익숙해 졌다. 한편으론 바쁜 데도 시간을 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했다. 선생님들도 우리들처럼 쉬고 싶으실 텐데도 담당반의 학생도 아닌 우리를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 감사하다. 드디어 대회 당일이 되었다. 별로 기죽지는 않았다. '선생님들과도 여러 번 토론을 해 봤는데 아이들하고 하는 것쯤이야.' 하는 생각이 내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다. 하지만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가보다. 난 입론, 윤지는 반론, 현석이는 평론을 맡았다. 순서는 제비뽑기로 결정 되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입론을 하여야 한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추스르고 입론을 하였다. 다행히 입론이 잘 되었고, 반론에 대한 답변도 나와 윤지, 현석이 호흡을 맞추어 잘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선을 멋지게 통과하여 준결승에 올라갔다. 준결승에서는 우리가 먼저 평론을 맡았는데, 워낙 강팀이랑 토론을 하여서 그런지 아쉽게도 떨어지고 말았다. 토론 후에 선생님과 우리는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 같다. 책의 내용을 깊게 파악 하는 것, 토론 하는 방법 및 자세,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로 친구를 이해하는 것. 이번 경험은 정말 오래도록 잊혀 지지 않을 것이다.





## 장수풍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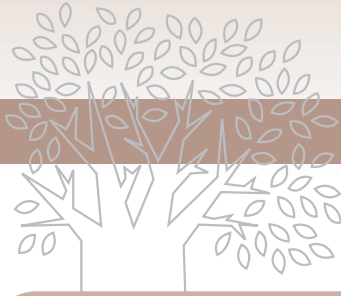
함양초등학교 4학년 3반 김민찬

방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집에 있는 장수풍뎅이 번데기 열한마리가 성충이 되었다. 성충이 된 장수풍뎅이들의 몸집이 점점 커지면서 나는 문득 장수풍뎅이의 방이 좁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동생에게 “우리 사육통을 큰 것으로 바꿀래?” 하고 물었더니 동생은 “그래, 그러자!”하면서 좋아하였다.

사육통을 큰 것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나와 동생은 다음 날 바로 장수풍뎅이들을 종이로 만든 커다란 사육통으로 옮겨 주었다. 활발하게 기어 다니는 장수풍뎅이들을 보니 장수풍뎅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이 느껴졌고 나 또한 뿌듯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커다란 사건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며칠 후, 장수풍뎅이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사육통을 열다가 사육통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급하게 상자를 살펴보니 상자에 구멍이 여러 개 ‘뿡’ 뚫려 있었다. 순간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다. 급하게 상자를 열어 보니 그렇게 신나게 기어다니던 장수풍뎅이들은 온데 간데 없고 암컷 장수풍뎅이 세 마리만 외로이 사육통 구석에 붙어있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다. ‘어디로 간 걸까?’ 생각하며 살펴보니 장수풍뎅이들이 종이로 된 상자의 조그마한 틈으로 나가거나 상자의 부실하거나 허름한 곳을 뚫고 탈출해 버린 것이다. 난 짝짓기도 할 수 없게 된 것과 장수풍뎅이를 친구들에게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사실에 아쉽고 안타까워 화가 났다. 그래서 동생과 나는 너털너털 해진 종이 사육통을 튼튼한 플라스틱 사육통으로 교체하였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며 하루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좀 더 튼튼한 통으로 바꾸지 못한 내 행동만 반성하다가 문득 장수풍뎅이를 생각했다. 좁은 통속에 갇혀 있다가 탈출을 했을 때 얼마나 통쾌했을까? 하고 말이다. 한마디로 ‘쇼생크 탈출’이다. 나는 섭섭하지만 이 밤 자유를 찾아 숲속으로 돌아간 장수풍뎅이는 달콤한 꿈을 꾸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무슨 일이든지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란 생각도 들었다. 나에게 조금은 섭섭한 일이 다른 누구를 기쁘게 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내 즐거움을 위해 장수풍뎅이를 가둬 놓았지만 실수로 놓아준 일이 장수풍뎅이에겐 자유를 얻게 해준 것처럼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 위대한 반전

필립 풀리펜 지음, 신준영 옮김 - 서울 : 랜덤하우스코리아(2008. 8.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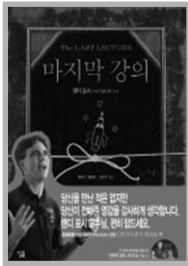
- 선천적인 학습장애와 음울하고 폭력적인 가정환경 등으로 초등학교 졸업마저 불안해하던 문제아였던 저자는 몇몇 친절한 선생님들의 배려 속에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열망을 품게 된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두 청소년 중 한 명은 성공한 변호사가, 다른 한 명은 범죄자가 되는 걸 보면서 비슷한 환경과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 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지에 의문을 갖게 되고 35년간의 심리상담과 컨설팅 경험을 통해 사람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것이 각자의 성격적 약점임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어떻게 인생을 반전시켜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상세하게 들려주며 우리들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개인적인 약점 10가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극복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 괜찮다, 다 괜찮다 : 공지영이 당신께 보내는 위로와 응원

공지영, 지승호 지음 - 서울 : 알마(2008. 8. 발행)

- 전문 인터뷰어 지승호가 그동안 독자들이 궁금해 했던 이야기,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공지영에게 물어 엮은 인터뷰집이다. '공지영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작가 공지영, 그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다시 부드러운 말로 위로해주기도 하는 노련한 인터뷰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게 만든다. 공지영이 말하는 문학의 정의, 공지영이 미처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와 인간 공지영을 서슴없이 보여주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담아 그녀를 간접히 만나고 싶어 했던 독자들에게 충실한 대리자가 되기 위해 애썼다.



## 마지막 강의

랜디 포시, 제프리 재슬로, 지음, 심은우 옮김 - 서울 : 살림(2008. 6. 발행)

- 카네기멜론대학의 컴퓨터공학 교수인 저자는 2007년 9월 18일 시한부 처방전 선고를 받고 피츠버그 캠퍼스에서 마지막 고별 강의를 했다. 죽음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재미있게 살 수 있을지, 아이들에게는 어떤 지혜를 남겨줘야 할지 등을 고민하며 행복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니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라고 조언한다. 이 책에는 유쾌한 웃음으로 시작해 이내 뜨거운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그의 마지막 강의 내용인 장애물을 헤쳐 나가는 방법,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돕는 방법, 모든 순간을 값지게 사는 방법, 당신의 인생을 사는 방법 등을 담아 오늘을 힘겨워하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에크하르트 톨레 지음, 신혜경 옮김 - 서울 : 마음의 숲(2008. 8. 발행)

- 인간과 자연의 깊이 있는 관계를 꿈꾸는 마음이 모여 황무지 같던 스코틀랜드 모래땅을 활짝 꽃피웠다는 핀드혼 생태공동체 마을, 이 마을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영적 교사인 에크하르트 톨레는 은둔 생활을 하며 명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  
톨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에는 현재와 과거가 만들어 낸 고통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말하며 현재의 고통을 창조하는 것을 중지하고 과거의 고통을 풀어내는 방법을 통해 대자연의 에너지를 느끼고 현재에 존재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는 내적 평화와 더 나은 삶의 수행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은 의식의 변화와 정신의 깨우침에 기대라는 것으로 명상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는 통찰의 시간을 갖기를 조언한다.



## 어린이 디카교실

박재철, 신광수, 김무광 지음 - 서울 : 일공육사(2008. 7. 발행)

- 영재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생태답사, 지리답사, 유적지, 박물관 답사를 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만든 책이다.

아이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어떤 사물을 사진에 담을지, 이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지 스스로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 통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일은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시각적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 교원 지상 갤러리



### 고 향 내 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마주친 여항산 자락의 정겨운 마을은  
어릴적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잊혀져 가고 있는 기억과 그리움을 담아보았습니다.



- 한 김해 계동초등학교 교사  
- 경상남도 초등미술교육연구회 회원

진영순



「학생이 행복한 교육」  
경상남도교육청이 만들어 갑니다.

<http://www.gne.go.kr>